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유학생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

한국인 학생들마다 관심도 편차 크지만 문제에는 공감
미 대선으로 높아진 정치 관심, 미 학생들도 관심 가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각종 이권 개입과 특혜, 인사, 비리,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 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3일 검찰에 구속됐다(사진:뉴스1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지금 보스톤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바라보

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또래의 보스톤의 한국인과 미국인 학생들은 저마다의 편차는 있었지만 현 정권에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대학생 C모 씨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C모 씨는 "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간외교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분노했다. 그는 "매일매일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가 나오는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외국친구들이 외국언론을 보고 무슨 상황이나고 물어보는데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지 막막할 때가 많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은 정치에 혐오감을 느껴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견과 정치에 더 관심을 보여야겠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살면서 딱 한번 군대에서 투표를 해 본적이 있다는 한 학생은 "그 때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투표했는데, 대통령의 문제들을 보고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치를 증오히린다는 L 씨는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삼 놀랄 일이 아니라며 "SNS만 떠들썩할 뿐이다"고 말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중인 신입생 C 씨는 20대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 "정치에 관 ▶▶4면으로 계속

일광절약시간 11월 6일 종료



6일 새벽 2시가 1시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 6일 새벽 2시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 시간 전으로 바뀐다.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지만 직접 바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차량의 시계는 11월 5일 밤에 시계를 한시간 뒤로 돌려 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 으로 기억하면 쉽다.

특히 일광절약시간이 해제되면 해가 일찍 저물고 아침에는 해가 일찍 뜨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광절약시간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제 여름 옷을 집어 넣고 겨울 의상과 장비를 준비해야할 시간이다.

hsb@bsotonkorea.com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OREA + JAPAN PACKAGE

한국방문길에 도쿄관광
일본권, 호텔, 저가항공, 코리안리조트스
1인 \$1499 부터 2인 \$2199

IACE TRAVEL

1.617.424.8956
1.866.619.4223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ejung@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교과서 대비반까지

FDart 학문판매 단지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6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매사추세츠 한인인구 급격히 줄었다 회복

2015년 인구 26,402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한인 인구가 2014년 급격히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2015년 매사추세츠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2015년 한인 인구는 26,402명이었으며 이는 전해인 2014년 20,659에 비해 6천여명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같은 지역사회조사에서는 28,944 명으로 집계되었고, 2012년에는 다시 25,718명, 2013에는 26,894

명 등 인구 수의 등락이 비교적 적었다. 지난 2014년에는 20,659명으로 급락한 것은 지역사회조사의 추정 인구 오차범위가 3천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감소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들어 26,402명으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지역사회조사는 각 지방정부가 한해의 예산과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된다. 따라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2015년 지역사회조사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에서는 중국계가 152,046명으로 여전히 아시안계중에서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계가 95,40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계는 44,485명으로 세번째를, 캄보디아인은 32,707명으로 네번째를 차지했다. 필리핀계는 12,340으로 한인을 이어 6번째를 차지했고, 일본인의 경우 9,9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 주재 총 아시안 인구는 413,079명이었다.

10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센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한인 인구는 2010년 현재 24,110명이었다.

hsb@bsotonkorea.com

	Massachusetts			Massachusetts	
	Estimate	Margin of Error		Estimate	Margin of Error
Total:	413,079	+/-4,865	Total:	430,739	+/-4,536
Asian Indian	95,485	+/-6,204	Asian Indian	93,529	+/-8,138
Bangladeshi	2,289	+/-1,416	Bangladeshi	4,231	+/-3,579
Bhutanese	990	+/-1,081	Bhutanese	1,057	+/-1,309
Burmese	1,189	+/-939	Burmese	99	+/-113
Cambodian	32,707	+/-5,288	Cambodian	29,959	+/-5,518
Chinese, except Taiwanese	152,046	+/-8,208	Chinese, except Taiwanese	164,031	+/-7,922
Filipino	12,340	+/-2,749	Filipino	13,053	+/-2,284
Hmong	962	+/-1,019	Hmong	350	+/-408
Indonesian	1,291	+/-767	Indonesian	741	+/-442
Japanese	9,918	+/-1,922	Japanese	8,668	+/-2,611
Korean	20,659	+/-2,820	Korean	26,402	+/-4,106
Laotian	3,608	+/-1,676	Laotian	4,625	+/-2,165
Malaysian	515	+/-343	Malaysian	1,012	+/-679
Mongolian	110	+/-135	Mongolian	289	+/-202
Nepalese	5,302	+/-2,139	Nepalese	5,333	+/-2,654
Okinawan	0	+/-198	Okinawan	0	+/-200

매사추세츠 한인 인구수 2014년(왼쪽), 2015년(오른쪽)



전통 난타팀인 들소리는 한국 전통 국악의 흥겨운 리듬과 난타의 개념을 혼합해 관객을 사로잡는다

보스톤한인회 연말파티 난타팀 들소리 초청 디너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한인회는 12월 10일 토요일 여성 4인조 유명 난타팀 들소리를 초청 디너쇼 개념의 연말파티, (보스톤한인의밤) 행사를 개최한다.

보스톤 서쪽 말보로 (Marborough, MA) 소재 베스트 웨스턴 로열 플라자에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개최되는 연말파티 행사는 양식 및 한식 부페를 겸한 식사와 들소리의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 난타팀인 들소리는 한국 전통 국악의 흥겨운 리듬과 난타의 개념을 혼합해 관객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국악기와 타악기 등의 공연을 진행한다.

한인회 남진병 사무총장은 “올해 한해 이민생활로 수고하신 한인

들이 이날 하루만큼 편안하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연말파티를 기획했다”고 말하고 “많은 한인들이 함께해 보스톤한인회와 한해를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연말 파티는 김경원 한인회장의 공식 임기의 마지막 행사다. 향후 회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될 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한인회측의 입장이다.

베스트웨스턴 로열플라자는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볼룸이다. 한인회 연말 파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진병 사무총장(646-220-3314)에게 하면 된다.

hsb@bso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해외 동포 언론 연합 시국 선언문 발표

“최순실 게이트 기사로 인한 수치심은 오롯이 한인의 몫”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연합체인 재외동포언론인연합(이하 재언협)이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국격의 파괴”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재언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위신은 이미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너진 국가의 위상이 고스란히 남북관계와 국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재언협은 전세계 주류언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최순실 게이트’ 기사로 인한 수치심은 오롯이 한인 동포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언협은 “국가규범을 어긴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통령의 하야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언협은 대신 “국민적 합성의 열망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펜을 놓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hsb@bsotokorea.com

브루클라인 공립학교 유학생 가족을 위한 박람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루클라인 공립학교는 11월 7일에 유학생 등 외국학생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 박람회(Community Resource Fair)를 개최한다.

이날 박람회에는 브루클라인 및 보스톤 지역의 4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유학생 가족들에게 무료로 자료와 정보를 나눈다. 브루클라인 공립학교 한세진 ELL 가족상담교사는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한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한국어 통역원이 필요한 경

우 통역을 담당해준다. 브루클라인 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이라면 모두 참여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Brookline Rec Center, Brooklin Adult Education, New England Aquarium, Boston Children's Museum, Puppet Showplace Theatre, Peant Butter & Jelly Dance Company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다. 문의는 한 세 진 교사 (sejin_choi@psbma.org; 617-264-6404)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언론인협회 시국선언문

— 이번 사건은 참혹한 국격의 파괴다 —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참혹한 심정을 지을 수 없다.

차라리 무능과 부패로 인한 파탄이라면, ‘내 어머니가 나병환자라 해도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겠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비통한 심경을 삼키며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무시하고 국민이 위임한 국가 통치권을 사유화한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다.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이번 사건을 ‘국격 파괴 사태’로 규정한다.

이번 사태는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인의 국정 개입도 문제지만, 국가운영 시스템이 비선실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붕괴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더욱이 외교·통일·안보·국방문제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한 나라의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마저 무너졌음을 나타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참혹한 국격의 파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위신은 이미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너진 국가의 위상이 고스란히 남북관계와 국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750만 해외동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만신창이가 된 순간, 해외 한인들의 자존감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전세계 주류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최순실 게이트’ 기사로 인한 수치심은 오롯이 한인 동포들의 몫이 되고 있다. 국가 위엄의 상실이다.

이에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성역없는 수사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가 규범을 어긴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투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가의 명예를 일으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국민 주권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붕괴임을 직시하고, 부패권력에 대항하는 국민적 합성의 열망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어떤 순간에도 결코 펜을 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10월 31일 사단법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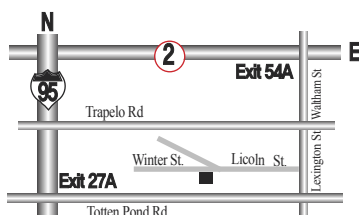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보스톤 학생들이 본 최순실 게이트

▶▶1면에 이어서

심을 갖기 시작할 나이의 젊은 층들이 제일 먼저 경함하게 된 것이 박 대통령의 어두운 이면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분노를 증폭시켜 지금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미국국적의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국적의 학생들보다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의견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학 전공의 H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 그런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H씨는 "해 외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들이 간결한 내용이 많아 더 깊은 내용이 전해졌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안 좋게만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아 마음이 착잡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중, 고교를 한국에서 나왔다는 음대생 L모씨는 "음대라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표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부터도 미국계다보니 한국 뉴스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대통령이 만약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바로



보스톤의 한국인과 미국인 대학생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인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은 미국대선으로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잠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언어학 전공의 미국인 대학생 G씨는 "한국을 뜨기 마지막 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보았다. 내가 시대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국제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국제관계학 전공의 K씨는 "미국은 바로 다음 주가 대선이기 때문에 외국소식인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나라 전체에서 얼마나 신용을 잃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K씨는 "박 대통령이 얽혀있는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며 "언론에 공개된 것은 시작에 불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는 또 다른 미국인 재학생 F씨는 "최순실 게이트는 힐러리 게이트와 비교하면 몇 배 이상은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매주 지역학 수업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대선 덕분에 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고 답한 그는 "지금까지 K-Pop에만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추수감사절 맞이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대잔치

11월 7일 ~ 25일 까지 (18일간)

홍삼의 주요효능

면역력 개선 / 동맥경화 예방 /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력회복 / 간기능 개선

잔치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잔치 2

자녀용 제품 구입시
아이키커 2세트 무료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 주문 781-238-0303

FedEx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보스톤 최초 한인호텔 문열었다

구 가야자리 포터스퀘어 호텔 들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지역 최초의 한인 호텔 <포터스퀘어 호텔>이 케임브리지 포터스퀘어 소재 구 가야식당 자리에서 11월 2일 문을 열었다.

구 가야식당 김민수 대표와 보스톤 중견 건설업체 영 컨스트럭션 이영호 대표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포터스퀘어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약 70여개의 객실을 갖췄다. 1층에는 바를 갖춘 스테이크 레스토랑 포터스퀘어 스테이크 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에는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췄다. 또 지하의 한 공간에서는 30석의 고급 맞춤형 한, 일식 예약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호텔과 레스토랑은 로드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호텔 경영 전문회사 스텝스톤이 맡아서 운영한다. 한인 소유의 호텔이지만 미국 전문 호텔 경영진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민수 공동언어는 “현재 한국어 데스크 및 서비스 직원을 구하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호텔 객실은 페넨트윈베드룸, 퀸베드룸, 킹베드룸, 스위트룸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스위트룸이 갖춰져 있는 5

층에는 전용 고객을 위한 작은 프라이빗 라운지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컨퍼런스 등 단체 예약 손님들이 모임, 파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2일부터는 객실만 오픈해 운영하며 12월경부터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이 문을 연다. 호텔 경영을 맡은 제너럴 매니저는 커티스 부처(Curtis Butcher)씨다. 호텔 대표전화는 617-499-3399번이다.

이 호텔은 하버드 대학과 불과 전철 1정거장 거리의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포터스퀘어의 풍경을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아담하고 예쁜 외형 디자인의 호텔이다. 5층 스위트 룸에서는 보스톤 다운타운이 내려다 보이기도 한다.

구 가야 레스토랑이 호텔로 변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담겨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케임브리지 가야, 보스톤, 브루클라인 가야 등 보스톤 최대의 한인 식당체인을 운영하던 김민수 대표는 2000년대 중반 케임브리지 가야에 호텔을 건설할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호텔로 전환키 위해 3차례에 걸친 소송을 극복해야만 했다.

2008년 케임브리지시로부터 호텔 허



보스톤 지역 최초의 한인 호텔 <포터스퀘어 호텔>이 케임브리지 포터스퀘어 소재 구 가야식당 자리에서 11월 2일 문을 열었다

가를 받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기와 맞물려 공사 시작까지 무려 5년을 기다렸다. 마침내 영 컨스트럭션 이영호 대표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3년 건설공사에 들어갔으며 3년만에 보스톤지역 최초 한인호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영호 영컨스트럭션 대표는 현재 완공된 포터스퀘어 호텔외에도 포터스퀘어 매사추세츠 예비뉴와 비컨스트리

트에 2개의 호텔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포터스퀘어에는 3개의 한인 호텔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민수 대표는 한국의 특급호텔계에서 대부분 통할 만큼 족적을 남긴 전문 매니저 출신이다.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근무 시작, 롯데 본점, 힐튼 호텔 등에서 매니저로서 근무했다. 도쿄 힐튼에서도 매니저로 근무한 전문 호텔 경영인이었다.

이영호 대표는 1980년대 PSI 히팅 및 난방 회사를 바탕으로 현재는 건설회사 영컨스트럭션에 주력하고 있다. 영컨스트럭션은 보스톤 한인 최대의 건설업체다. 케임브리지, 뉴튼 등 주요 부지에 대형 콘도미니엄 및 아파트먼트를 건축해 분양했으며 현재는 호텔 건설을 비롯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ditor@bso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쇼팽콩쿠르 우승자의 쇼팽 피아노 연주

쇼팽 콩쿠르 한인최초 우승 조성진 유매스 앰허스트에서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쇼팽 콩쿠르에서 한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22)이 10월 30일 유 매스 앰 허 스트 (UMass Amherst)의 파인아트센터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쇼팽 콩쿠르에서 한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22)이 연주회를 가졌다

미국내 주요 23개 도시 순회공연을 갖고 있는 조성진은 보스톤이 아닌 유 매스 앰허스트에서 공연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날 야체크 카스프치크 (Jacek Kasprzyk)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Warsaw Philharmonic Orchestra) 과 협연해 그의 실력을 과시했다.

첫곡은 바르샤바 필하모닉이 '바인베르크의 폴란드 멜로디들 2번 곡목 47' (Weinberg Polish Melodies No.2 Op.47)을 연주했고, 두번째 곡은 조성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 Op.37 (Ludwig van Beethoven Piano Concerto No.3 Op.37)을 연주했다.

쇼팽의 본고장인 폴란드의 오케스

트라이며 쇼팽콩쿠르이 열리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의 오케스트라와 쇼팽콩쿠르의 우승자였음에도 베토벤을 연주한 것은 관객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참가했던 마이클 리 본지 칼럼니스트는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기대했던 팬으로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앙코르곡으로 조성진이 쇼팽의 폴로네이즈 Op.53을 연주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마이클 리 씨는 "실망감을 감동으로 바꿔주었고 기립 박수는 당연한 것이었다." 고 소감을

말했다.

마이클 리 씨는 "다른 곳에서의 연주에서는 보통 앙코르곡으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Liszt, La Campanella)를 연주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 답게, 그리고 다른 연주회와는 다르게 조성진이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솔로곡을 들을 수 있어 감동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고 밝혔다.

(이 기사는 본지 의료보험 및 모기지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리 씨의 제보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ditor@bsotonkorea.com

이학수 교우회장 참여 고대 보스톤 교우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보스톤교우회는 10월 30일 일요일 찰스 강과 보스톤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MIT의 Eastgate 29층 펠트 하우스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학수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참여했으며 뉴잉글랜드 각 지역에서 모인 50여 명의 고대 교우회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장광준 교우회 사무총장과 미주지부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배기성 교우도 동행했다. 이학수 교우회장은 취임 첫째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우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를 미국 서부 교우회 지부

순회에 이어 미국 동부 교우회 지부 순회(보스톤, 뉴욕, 뉴저지, 워싱턴) 첫 순서로 보스톤을 방문하였다.

이태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스톤을 방문한 이학수 교우회장 일행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며 단합하는 교우회를 소개했다. 보스톤교우회는 보스톤의 상징인 레드삭스 모자를 이 회장에게 선물했다.

이학수 교우회장은 사재를 털어 보스톤교우회 발전기금과 선물을 전달했고, 보스톤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영상 교우에

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친교 시간에 이학수 교우회장은 대학 졸업 후 삼성 그룹에 입사하여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일한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태호 회장은 "45년의 학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우가 한마음으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 말했다.

교우들은 교우회에서 보내는 고대 기념품 등을 나누었으며 전인택 교우의 선창으로 교가와 교호를 제창함으로써 모임을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가 10월 29일 미태권도협회(USAT) 공인 태권도 심판 30명을 자체 배출했다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30명의 태권도 사범 배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가 10월 29일 미태권도협회(USAT) 공인 태권도 심판 30명을 자체 배출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15년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심판 세미나를 열고 30명의 심판자격증 획득을 도왔다.

유에스테태권도 우스터 도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는 정제형 회장, 리차드 안 부회장, 허훈 부회장, 전명호 사무총장, 김희용 재무, 홍순우 시범단장이 참여해 지원했다.

정제형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회장은 "우리 매사추세츠에서 이런 공식적인 세미나를 매년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많은 사범들과 학생이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한 심판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기에 진출하는 선수들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

다. 태권도 협회는 개인당 \$95인 심판 세미나 참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 학생들의 심판자격증 획득을 도왔다.

이번에 심판 자격을 획득한 학생 심판들은 11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그래프턴 하이스쿨에서 개최되는 열리는 11회 미국 매스터오픈 태권도대회에서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프턴 하이스쿨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정제형 회장과 김희용 재무가 호

태권도 협회 재무는 "이번 시험에 모든 분야에 완성도 있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대회에 끝나는 날까지 빈틈없고 완벽한 대회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제형 태권도협회장은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과학과 예술의 만남 다빈치의 천재성을 재조명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시가 보스톤 과학 박물관에서 열린다. ‘다빈치-더 지니어스’ (Da Vinci - the Genius)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예술, 건축,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다빈치의 업적 중 과학적 발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00개가 넘게 선보이는 작품 중에는 다빈치의 발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비행기(Dragonesque Ornithopter Flying Machine)의 실물 모형, 스쿠버 다이빙 기계 (Proto-SCUBA Diving Aparat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은 노트북에 암호로 기록한 다빈치의 발명을 실물로 재현하여 전시하기 위해 이탈리아 장인들이 르네상스 당대의 재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다빈치-더 지니어스’ 전은 전세계 순회 전시로 호주의 그란데 전시회 (Grande Exhibition)와 이탈리아의 일 제니오 디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제오(Il Genio di Leonardo da Vinci Museo)의 협업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보스톤 과학박물관에서의 전시 이

전에 오클라호마와 오데사 등에서 전시한 바 있다.

보스톤 과학박물관의 교육 및 기획 전 디렉터 래리 랄프 (Larry Ralph)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란데 전시회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로 해설가들을 배치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번 전시가 박물관의 기존 전시물인 자연사, 수학, 인체해부 등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빈치의 발명품에 사용되는 바퀴, 레버, 펌프 등의 시스템의 작동법을 설명하는 롤 카트와 스탠드가 전시장 구석구석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모나리자의 비밀’ (The Secrets of the Mona Lisa)전에서는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에 대한 집중적 해부가 이루어진다. 모나리자를 40개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대하여 탐구하며, 이는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칼 코트(Pascal Cott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코트의 회사 루미에르 테크놀로지

(Lumiere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가 30개의 빛 필터를 통해 페인팅 표면 위의 붓 터치를 층층이 분해하여 보여준다.

코트는 지난 2011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카메라는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듯 화가의 붓 터치를 층층이 벗겨준다”고 말한 바 있다. 랄프는 코트의 이러한 기술이 세월의 흔적을 벗기고 1507년 다빈치가 이 그림을 막 완성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름 ‘다빈치-더 지니어스’ 전을 전시했던 오클라호마 과학박물관의 교육 디렉터 클린트 스톤(Clint Stone)은 “이 전시는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혼이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다”고 말했다.

‘다빈치-더 지니어스’ 전은 보스톤 과학박물관에서 10월 23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별도의 입장권 구매 없이 박물관 입장권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617-723-2500, www.mos.org sun@bostonkorea.com



다빈치의 과학적 발명이 실물 모형으로 제작되어 전시된다 (이미지 출처 mos.org)

매사추세츠 주의 1인당 건강보험비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지난 몇 년에 걸쳐 실행된 미국 내 건강보험 개혁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근 발표된 코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건강보험료 및 자기 부담금이 느리게 상승한 것에 비해 의료 치료비는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스톤닷컴(Boston.com)은 지난 31일 보도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사라 콜린스(Sara Collins)는 “좋은 소식은 고용인이 부담해야 하는 직장 건강보험료가 느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고용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을 지속할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전체로 봤을 때 한 가구당 건강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의 10.1%에 달한다. 가구당 소득이 높은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7.3%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연간 건강보험 비용은 1인당 \$6,519, 한 가족당 \$18,454이었다.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인은 해당 보험료의 4분의 1 정도를 감당한다. 따라서 지출 보험료는 1인당 \$1,255, 한 가족당 \$4,710이었다. 고용인이 부담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사이(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전에 비해(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낮은 비율로 상승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대신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고(高) 자기부담건강

보험(HDHP)이 보편화되면서 2006년 66%이던 자기부담건강보험금은 10년 이 지난 작년 85%로 증가했다. 평균액은 두 배로 상승했는데,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2006년에 \$603이던 자기부담금이 작년 평균 \$1,200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인 \$1,54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미국 내 어떤 주보다 높은 편으로, 18세부터 65세에 해당하는 성인 중 95%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98%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 매사추세츠 주에서 실행된 건강보험 법안 개혁에 의한 것으로, 이 법안은 모든 성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과 최소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의 의무화가 미국 회사들에 비교적 쉽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중산층 이하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늘어난 가계비용이 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소득에 비해 높은 자기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앞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대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 세기가 걸렸다. 시카고 컵스 월드시리즈 우승

174년(107년+67년)을 기다린 양 팀다운 치열한 명승부
컵스 8-7 연장 10회 승리, 최고의 월드시리즈로 기록 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시카고 컵스는 더 이상 내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빅 폭스스포츠 캐스터), “월드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재 MBC스포츠+ 캐스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명승부로 기록될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대결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컵스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다. 107년과 67년, 우승을 어느 팀보다도 가장 간절히 원하던 두 팀의 최종승부였던 만큼 야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겹치며 옆치락 뒤치락했다. 컵스의 우승으로 컵스는 MLB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이라는 꼬리표를 땀 반편 클리블랜드는 MLB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 팀이라는 불명예를 컵스로부터 넘겨받았다.

6차전까지 양 팀 3승 3패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양 팀이었던 만큼 마지막 7차전은 치열한 접전이 이어

졌다. 먼저 선취점을 따낸 팀은 컵스였다. 컵스는 1회 초 컵스의 1번타자 텍스터 파울러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려냈다. 이에 맞서 클리블랜드도 3회 1사 3루 상황에서 카를로스 산타나의 우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컵스는 이에 질세라 4회 히생플라이와 적시 2루타로 두 점을 달아나 3-1을 만들었다.

컵스는 경기 초반 무려 3개의 잇따른 수비 실책과 기록되지 않은 유격수 포구 미스로 자멸하는 듯 했다. 하지만 컵스의 선수들은 실책을 하고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갔다. 컵스의 2루수 하비에라 바에즈는 1회 말과 3회 말 수비에서 각각 악송구와 공을 떨어뜨리는 실책을 범지만 이내 5회 초 솔로 홈런을 날려 자신의 두 번의 실책을 만회했다.

컵스가 한 점을 더 벌여 점수를 5-1로 벌린 상황에서 클리블랜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클리블랜드는 5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컵스의 바뀐 투수 존 레스터를 상대로 포수 실책과



컵스의 선수들이 10회 말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폭투로 단숨에 안타 없이 5-3을 만들었다. 특히 포수 실책으로 2사 1루가 2사 2, 3루가 되자 흔들린 레스터의 폭투 때 홈까지 전력질주한 2루주자 제이슨 킵니스의 상황판단이 돋보였다.

컵스는 5회 말 실책을 기록했던 포수 데이비드 로스가 6회 초 공격에서 솔로홈런으로 한 점을 만회하여 6-3, 3점차로 다시 벌려 여유를 되찾았다. 8회 말 2아웃 상황에서 레스터가 내야 안타를 허용하자 컵스의 매든 감독은 아롤디스 채프먼을 올렸다. 그러나 클리블랜드의 타자들은 채프먼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브랜든 가이어가 1타점 2루타, 라자이 데이비스가 투런 홈런 쏘아 올리며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다.

9회까지 경기를 마친 양팀은 연장전 돌입을 준비했다. 그러나 연장 준비중 강해진 빗줄기에 양팀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우천으로 15분간 지연된 경기는 흐름을 다시 컵스쪽으로 바꿔놓았다. 컵스는 연장 10회 초 벤 조브리스트의 1타점 2루타와 미구엘 몬테로의 좌전 적시타로 두 점을 달아나며 8-6을 만들었다. 클리블랜드는 연장 10회 말 2아웃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볼넷과 도루, 적시타로 기어이 한 점을 따라갔지만 더 이상의 안타가 터지지 않아 최종 스코어 8-7로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실망스러운 컵스 감독, 우승 날려먹을 뻔

컵스가 108년만에 우승을 거머쥐는 감격을 맛보았지만 조매든 감독의 경기운영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투수 교체였다. 컵스의 선발 카일 헨드릭스는 3회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타선의 공격 지원아래 이후 피안타 없이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에 조급했던 매든 감독은 헨드릭스가 5회 2사 상황에서 볼넷을 허용하자 투수를 즉시 레스터로 바꿨다.

물론 매든 감독은 7차전 경기 전부터 선발투수인 레스터를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 >>9면으로 계속



8회말 2아웃 상황에서 클리블랜드의 라자이 데이비스는 채프먼을 상대로 기어이 투런동점홈런을 쏘아 올리며 경기를 잠시나마 원점으로 돌렸다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컵스 108년만에 MLB 우승, 그리고 말말말

▶▶ 8면에 이어서

다. 그러나 시점이 문제였다. MLB 통산 308경기에서 볼펜경험은 단 1경기에 불과한 그에게 등판하자마자 주자 1루에서 시작해야하는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다. 이어진 포수의 1루 송구 실책으로 주자 2, 3루 실점 위기상황을 맞이하자 레스터는 폭투를 던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피안타 하나 없이 올라오자마자 2실점을 허용했다.

채프먼이 올라온 상황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5회를 힘들게 넘긴 레스터지만 6회와 7회에는 에이스답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매든 감독은 그가 8회 투아웃 상황에서 안타를 허용하자마자 바로 채프먼 카드를 꺼내든다. 채프먼은 시속 105마일을 던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의 사나이지만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 4번의 경기출장으로 지쳐있었다. 특히 5차전에서 2.2이닝동안 42구를 던진 채프먼이 전날 6차전에서 굳이 5점이나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올려 체력을 소진시킬 이유가 없었다. 결국 감독의 판단의 결과는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 투런홈런이었다. 우승팀 감독답지 않은 최악의 선택만 골라 한 것이다.

저주덕에 얻은 승리?

재미있는 사실은 양팀은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홈경기보다 원정경기에서 더 많은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컵스는 올 시즌 홈에서 57승 24패, 원정에서 46승 34패

로 홈에서의 승률이 더 좋았다.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로 홈에서의 기록(53승 28패)이 원정기록(41승 39패)보다 월등히 좋았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서는 컵스가 4승 3패로 이중 홈에서 얻은 승리는 단 1승이다. 클리블랜드도 3승 4패중에 3패를 홈에서 당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컵스의 염소의 저주와 클리블랜드의 와후 주장의 저주에서 홈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른 클리블랜드가 더 많은 저주에 썩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2016년은 꿈의 해?

한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 한, 미, 일 야구 시즌의 최종 우승팀의 마스코트는 꿈이라는 것이다. 코리안시리즈의 우승팀 두산 베어스는 이름 그대로 마스코트가 꿈이다. 재팬시리즈의 우승팀 닛폰햄 파이터즈의 마스코트는 '브리스키 베어' 라는 이름의 꿈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승을 확정지은 시카고 컵스의 컵(Cub)은 새끼곰을 의미한다. 다만 프로야구의 경우 마스코트로 꿈을 가지고 있는 팀은 현재 없지만, 올해 우승팀 이다 라이노스의 전신은 귀 베어스로 이 또한 꿈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컵스의 팬들은 클리블랜드까지 대거 원정 와 경기장의 절반을 메우며 컵스를 응원했다



아프리카-아메리칸 고객들은 우버 이용에서 탑승거부율과 승차대기울 모두 백인 고객보다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 보스턴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탑승 거부율 두배 높아

미 경제연구소 연구 발표, 흑인 승차거부율 10% 탑승 대기시간도 흑인이 백인보다 35% 더 길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에서 인종과 성별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보스턴의 우버 드라이버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름의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확률이 백인의 이름을 한 승객 거부율의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를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보스턴과 시애틀 지역에서의 1,500건의 우버와 리프트(Lyft)와 같은 경쟁업체를 추적조사 하였다. 보스턴 지역에서 조사에서는 흑인계 이용자와 백인계 이용자의 탑승 거부율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실험 대상자는 흑인계 이름과 백인계 이름 각각의 그룹으로 나뉘어 우버 탑승을 예약했다.

실험 결과 흑인계 그룹에서 두배의 탑승 거부율이 나타났다. 백인계 이름의 그룹은 4.9%의 거부율을 보인 반면 흑인계 이름을 사용한 그룹은 10.1%의 거부율을 보였다. 흑인계 중에서도 남

성이 여성보다 더 큰 거부율을 보였다. 연구진인 스탠포드 대학의 스테판 조에프 교수는 "우버의 드라이버는 우버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버 자체가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를 사용하는 개별적 행위라고 본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주기를 권고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특정 도시의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시애틀에서의 연구에서는 인종별 이용자의 우버 대기 시간을 조사 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흑인 고객이 백인 고객보다 우버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35%나 더 길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차량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임금과 소수자 그룹 고객들의 환경을 개선해 왔다"면서도 "이 연구결과가 더 나은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목, 어깨, 허리 통증, 근육경직
-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집중력
- 비염,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장애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폐경기 대량출혈
- 심혈관 질환, 비정상적인 EKG, 기침
- 만성적인 중추신경 질환, 불안, 이질
- 여러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능성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lim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차터 스쿨 확대 주민투표안 막판 공방 치열

버니 샌더스 전 대통령 후보 2번 질문 반대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차터 스쿨 확대 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선거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터 스쿨의 확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까지 가세하면서 차터 스쿨 확장에 대한 찬반 캠페인은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11월 8일에 치러지는 올해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는 4개의 안전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투표에 발의된 4개의 법안 중 2번째 질문이 차터 스쿨을 더 확장할지에 대해 묻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는 법으로 전체 차터 스쿨의 숫자를 12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군에서는 차터 스쿨의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해 대기자 명단이 수백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주민투표 질문은 매년 12개까지 신규 차터 스쿨을 추가로 허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주민투표를 정확히 1주일 앞둔 지난 1일, 샌더스 전 대통령 후보는 매사추세츠의 주민투표 2번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주민투표 2번 질문을 지지하는 자금이 뉴욕에서 나오고 있고, 차터 스

쿨이 확대되면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재원이 새어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성명서에서 “월스트리트가 매사추세츠에서 공립 교육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월스트리트가 공립 학교의 재원을 빼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시도다. 공립 학교의 비용은 저소득층,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영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터 스쿨 확대 찬성 캠페인을 위한 전체 모금액은 2,700만 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중 상당 금액인 2,200만

달러는 뉴욕시에 위치한 단체에서 보내졌다.

반면에 공화당 출신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일 오전에 스프링필드를 방문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차터 스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차터 스쿨이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2번 질문에 대해 YES라고 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 대하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 던칸은 주민 투표 2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2번 질문에 대해 반대하는 가두 행진에 참여했다.

jsi@bostonkorea.com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전 대통령 후보는 매사추세츠의 차터 스쿨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풋볼 경기 중 트레이너가 선수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뇌진탕 학생 선수 10명 중 4명 경기 바로 복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뇌진탕에 대한 10여 년의 연구 결과 의사들은 젊은 선수들이 뇌진탕 징후를 보이면 즉각 경기장을 떠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지난 달 2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38%의 학생 선수들이 뇌진탕 증세를 보인 뒤에도 같은 날 경기에 다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웨인 밀러 박사는 “(뇌진탕 후에) 계속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 훨씬 심각한 뇌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세에서 18세 사이의 운동 선수들이 뇌진탕 치료를 받은 기록을 담고 있다. 미식 축구를 하던 선수들이 뇌진탕 부상을 가장 많이 당했으며, 그 다음이 축구였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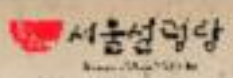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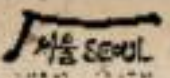




가시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lBeefSoup.com



Seoul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매, 임대,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영어를 못하는 학생은 입학이 어려운 차터 스쿨

보스톤 소재 차터 스쿨 영어 미숙년 학생 13%에 불과 장애 학생들 입학 불이익 6년 전 주법 변경 이후 완화 차터 스쿨 반대자들 공립학교 질 더 낮아질 것 우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차터 스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사추세츠 주 내 차터 스쿨이 영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입학에 제한하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지난 31일 보도했다.

자유로운 제도의 운용으로 기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여겨지는 차터 스쿨이 막상 가장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입학에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와 같은 불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보스톤이다. 보스톤은 주 내에서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보스톤 소재 19개의 차터 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의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이는 보스톤 내 학교들의 입학 인원 중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학생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차터 스쿨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보스톤 내 학교 1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몇몇 명성이 높은 학교의 경우, 영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 반면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도 열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학교

의 경우 84%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이와 달리 차터 스쿨은 대부분 낮은 이민자 학생 비중을 보이고 있다. 차터 스쿨 중 영어 학습 필요가 있는 학생의 입학에 가장 많이 허가한 곳도 체스터의 브리지 보스턴 차터 스쿨(Bridge Boston Charter School)로, 재학생 중 37%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

차터 스쿨을 비롯한 학교들이 입학 시 학생을 차별하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보스톤 글로브는 2009년, 보스톤 소재 16개의 차터 스쿨에서 영어교육이 별도로 필요한 학생들의 입학에 제한했으며, 단지 100명 이하의 학생만이 입학하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그 당시 16개 중 6개의 차터 스쿨에는 아예 영어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이 없었다.

6년 전, 당시 주지사였던 데발 패트릭(Deval Patrick)은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가장 낙후된 지역의 차터 스쿨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도록 주법을 변경했다. 이처럼 법을 변경하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차터 스쿨들은 영어 교사를 늘리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학습적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의 입학에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방침을 마련하는 등의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후 차터 스쿨은 장애가 있는 학생

들의 경우 일반 학교와 비슷한 정도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소재의 모든 차터 스쿨들은, 작년 한 해 14%의 장애 학생들의 입학에 받아들였다. 공립학교의 경우 16%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스톤 글로브는 그 원인 중 하나로, 많은 도심지역의 차터 스쿨들이 영어 교육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의 인구를 무시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서머빌 기반의 다문화 교육 기관의 로저 라이스(Roger Rice)는 "차터 스쿨이 왜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받지 않으려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가르치기 힘들고, MCAS시험의 평균 점수를 떨어트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차터 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오는 8일 주민투표를 통해 차터 스쿨 확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더 많은 도시에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부

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차터 스쿨에 몰리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기존의 학교에 남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차터 스쿨의 리더들은 그들이 많은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예로 흑인과 라틴 학생들의 높은 비중을 들었다. 또한, 모든 차터 스쿨이 일반 학교 시스템의 통계에 완벽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지어 지역의 공립학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통계 수치에 완벽히 맞아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sun@bostonkorea.com



작년 한 해, 보스톤 내 19개의 차터 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학생의 비중은 13%였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5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클린턴, 트럼프에 '오차범위' 3%p 지지율 격차

NYT "이메일 재수사와 트럼프 지지층 결집 영향"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대선에 닷새 남겨둔 3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3%포인트(p)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세 종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뉴욕타임스(NYT)-CBS뉴스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은 제3당 후보를 포함한 4자대결 구도에서 45%의 지지율을 획득해 42%의 트럼프를 3%p 격차로 앞섰다.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는 5%, 질 스타 녹색당 후보는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을 발표한지 수시간 뒤 실시돼 발표 이후 대선판의 대격변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까지 클린턴은 성추문에 빠져 있던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었지만 FBI의 이메일 재수사 발표와 트럼프 지지층 결집이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줬다고 NYT는 해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52%가 오는 11월 8일 투표에 대해 '아주 열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클린턴 지지층의 선거 기대치는 지난 9월 이래로 꺾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라고 답한 클린턴 지지자들은 47%였다.

클린턴은 여성 유권자에서 트럼프에 14%p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는 남성 유권자 사이에서 클린턴을 11%p 앞섰다. 앞선 3차례 대선에서 대다수 공화당을 지지했던 백인 여성은 이번엔 50 대 50의 비율로 갈라졌다.

대선일을 코앞에 두고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이 투표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60%에 달했다.

하지만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폭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40%가 지난달 트럼프의 음담패설과 성추행 의혹 등 각종 성추문으로 투표 의사가 하락했다고 대답했다.

클린턴의 경우, FBI의 이메일 재수

사가 지지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대답은 트럼프보다 적은 33%(3분의 1)에서 나왔다.

투표 이전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10%였다. 이 가운데 클린턴과 트럼프 지지자는 정확히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자가 미 전역에서 2200만 명을 기록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20%가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일을 지금과 똑같이 닷새 앞둔 시점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는 미트 롬니 당시 공화당 후보와 최근 여론조사 평균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오바마 후보가 롬니 후보를 누르고 4%p 차로 승리했다.

이번 조사는 미 전역 1333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3%p다.

icef08@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텐트럼 美 증시... 대선 '오렌지스완' 대비 중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재현... 5년래 가장 하락세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트럼프 텐트럼(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까지 S&P500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1년 11월 이후로 이렇게 오래 주가가 빠진 적이 없었다. 투자자들은 그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득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트럼프'가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를 언급한 이후 펼쳐진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 때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발작' 증세가 '오렌지 스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일단 현실화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을 의미한다. '오렌지 스완'도 큰 충격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블랙스완과 유사하나 블랙스완과는 달리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보뱅크의 바스 반 게펜 애널리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확실히 '오렌지 스완'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신(新)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흐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연말 증시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현 금융시장의 상황을 두고 "땀이 붓고되고 있으며 모두가 이를 감지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지며 S&P500지수가 5%~10%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수가 지지선 2130포인트를 하향 돌파한 것이 약세 신호라고 진단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기 투표자 수가 지난 2012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감지됐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재투표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구글 트렌드 분석을 보면 '조기 투표 취소'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제공업체 나넥스(Nanex)의 에릭 스킷은 이러한 구글 트렌드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블랙스완투자자산운용의 바이런 위엔은 "많은 펀드매니저들이 올해 부진한 투자 수익을 거뒀다"고 전하며 "이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주식시장이 상승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g@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aj.usgtr@gmail.com

857.600.6755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0:30 (금, 보)에 예배합니다
성서 강독(영) 요점 7:40
성경(영) 8:00-8:30
6월(주일) 9:00-10:30
성경 강독(영) 10:30-11:00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게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월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전 8:00(화~일)
무소망전화: ☎ 9:30~12:30

담임목사: 김현터
017.79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790.790.4488
http://worluc.org

RE/MAX

Eileen Park (이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아마존, 평년보다 조금 빠른 1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

(서울=뉴스1) 정해민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평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다.

1일 아마존은 블랙프라이데이 딜을 시작했다. 아마존의 블랙프라이데이 딜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5분마다 새로운 상품이 공개된다.

아마존은 또한 고객들의 선물 선택을 돕기 위한 '연휴 선물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마존 프라임(유료 회원서비스) 고객은 추가 딜을 이용할 수 있다. 선주문 상품 및 새로 발행된 비디오게임에 2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는 3000만여 종 품목에 익일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코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알렉사 보이스 쇼핑을 이용할 수 있다. 알렉사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다. 인공지능 알렉사는 에코, 아마존탭(휴대용 스피커), 에코닷(초소형 스피커) 등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IT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이날의 주요 딜로 △LG전자의 2015년형 55인치 커브드 스마트 OLED TV △킨들 페이퍼 화이트 △킨들 △킨들 보야지 △앵커 60W/12A 6포트 USB 충전기 파워포트6 △앵커 파워라인 마이크로 UBS △로쿠 스트리밍 스틱 등을 선정했다.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딜은 평소와 같이 판매 개수가 제한돼 있으며 매

일 구매 가능한 딜이 바뀐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기까지 기다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아마존이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오는 15일부터 '패키지 엑스레이'를 통해 고객들은 아마존 모바일 앱으로 안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이폰으로 상자 겉면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hemingway@news1.kr



유가 3%대 급락...美 주간 원유재고 예상보다 10배 늘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 급락세다. 유가는 지난 9월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합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미 동부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35분 현재 전장 대비 1.56달러(3.3%) 밀려 배럴당 45.11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1.35달러(2.8%) 내린 배럴당 46.79달

러를 나타냈다. 두 유종 모두 지난 9월 28일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주간 석유재고가 급증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유가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EI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원유 재고는 1440만배럴 늘어나 4억8260만배럴을 기록했다. 재고 증가분은 시장 예상(190만배럴)의 10배에 가까웠다.

kirimi99@news1.kr



오스틴 해러프(19)

플로리다 10대, 이웃 부부 살해후 인육도 먹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부부를 살해한 뒤 남편의 얼굴을 물어 뜯다가 체포된 10대 소년이 체포 직후 "인육을 먹었다"고 직접 증언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심지어 당시 소년의 입 속에서는 머리카락이 다량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이웃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틴 해러프(19)의 진술서 등 법원에 제출된 각종 수사 자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러프는 지난 8월 중순께 플로리다 테체스타의 주택가 이웃에 사는 미셸 미쉬콘(53)과 존스티븐스(59) 부부를 공격해 살해한 뒤 남편 스티븐스의 시신에 올라타 얼굴을 물어 뜯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고교 축구팀의 수비수 출신이며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던 해러프는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 몇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다.

WP에 따르면 해러프는 이때 병원에서 경찰 수사관에 "뭔가 나쁜 것을 먹었다"며 도움을 호소했고, 수사관이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자 "인간"이라고 답했다.

수사관들은 해러프 진술 조서에 "해러프가 인육으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서 내뱉었고, 입속에서는 인간의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해러프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시신 가슴 부분을 물어뜯으려 시도하면서 계속 인육을 씹고 있었다고 현장에 최초 도착한 경찰은 기록하고 있다.

해러프는 피해자 2명에 대한 2급 살인 혐의와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시도한 또다른 남성 한 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러프는 사건 당시 합성 신종 마약인 '플래카' (flakka)를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ebae@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톤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저육볶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파방돌 공장 전경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넓기드문 현명통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8,900
 2가구 세들어 3호, 총 수납 약 18,000,
 대지 면적 8000 sq.ft, 1970s 80764



Newton \$1,300,000
 271구세부, 연수\$104,900, 대지면적4200sq ft,
 1970년대 양대 차가 있음.
 팔로하기 좋은 위치 7 근접, 보스톤대학



Newton \$1,299,000
 2015년 새집, 최고 학교, 후가운과 6067sq ft,
 대지면적 16090 sq ft, 방7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859,000
 2015년 새집, 방5개, 화장실 2.5개,
 후가운과 2000sq ft, 대지 면적 4770 sq ft,
 H road 상점 근접.



Boston Fenway \$ 984,000
 방 1개, 화장실1개, 후가운과 679sq ft,
 40도 line \$ 200 후가운, 19th water(보통)
 365를 중심지 대역, T station, 공원, 박물관.



Woburn \$1,360,000
 2015년 새집 최고로 좋은 방4개 화장실 4.5개
 후가운과 4000sq ft, 대지면적 17040sq ft,
 매우 바쁜 최고의 학교, 근접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oburn, MA

'비선실세' 최순실 결국 구속...法 "범죄사실 소명돼"

'직권남용·사기미수'...연설문 유출 등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구속에 사유와 필요성 인정"영장 발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3일 검찰에 구속됐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8일 만이다.

검찰이 우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긴급체포)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 등 800억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인데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와 안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보고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에 추가로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또 자신의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검찰은 재단 돈을 최씨가 실제로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에 머물던 최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다음일인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 검토했다거나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최씨가 만든 비텍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 창구 역할, 독일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외화 밀반출,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의 이화여대 특

혜 입학, 삼성의 수석역원 지원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내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에 대해서는 오는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dandy@news1.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NOV. 4 - NOV. 10, 2016

STEAK SUSHI DEDICATED TO MEAT LOVERS!

H마트와 함께 만드는 색다른 초밥! 초밥에 생선대신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올린 특별한 초밥을 만들어보세요!

Just how much of a sushi addict are you?
 And what about steak?
 Ever wish the two came together?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SUMMER ENDS SAVING STARTS Please turn back your clocks 1 hour on Nov. 6th(Sun.) at 2AM.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夏令타임이 해제됩니다. 시계조정시간 뒤로 돌려놓으세요!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California Fuyu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10.99 box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lb.	Purple Sweet Potato Hawaii 히와이안 보라색 고구마 \$1.99 lb.	JINGA Tofu 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0.99
Packed Garlic 맥 마늘 5cnc/pkg 2\$3 pkg/for	Gobo 우엉 \$1.99 lb.	Washington Fuji Apple - 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1.49 lb.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19.99 box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7.99 box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Flank Steak 양지마 양지 (육계정) \$6.99 lb.	Chicken Tenderloin 닭 안심 \$2.49 lb.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돼지 목살 \$4.99 lb.	Beef Bones 냉동 쇠골 \$1.2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멧돼지 삼겹살 \$4.9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부들멸치 \$6.99 5oz./pkg	CHAM Salted Mackerel 참 순살 고등어 \$4.99 12.1oz./pkg
Extra Large Head-on Black Tiger Shrimp 特大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Super Large \$24.99 lb.	TONGTONGBAY Rollback Fillet 통통배 등목전갱이 \$3.99 lb.
SUHYUP Saifin Sandfish 수협 냉동 도루묵 \$4.99 lb.	Top Neck Clams 살아있는 참치 조개 \$1.49 doz.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10lb. \$9.99	ASIAN BEST Jasmine Rice 20lb. \$17.99
KWANGCHUN Green Tea Seaweed Lager Original 0.7oz x 10ea./box \$12.99	BOUNTY Paper Towels 24x36x4pkgs \$14.99

HOT SALE

푸드를 아는 사람들 - 청정원

Chungjungone Autumn Best-Seller Sales Event

NOV. 4th - NOV. 10th at Hmart Burlington Store

CJ Sannik Udon Noodle CJ 사누끼 우동면 \$3.99	CHUNGJUNGONE Sunchang Soybean Paste 청정원 순장 두부리 청정장 \$7.99	YMASA Soy Sauce 야마자 간장 \$2.99	HAKREUM Canned Red Top Shell 예오름 홍합 \$4.99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커리 2\$5	HORMEL FOODS SPAM 호름 푸드스 스팸 2\$5	HAKREUM Dumpling 예오름 만두 \$4.99	CHUNGJUNGONE Dongsuh Maxin Coffee Mix 청정원 동수흑 곡이 믹스 스프 \$12.99
NANSO Oreo Soft Matcha Cookie 나소 소프트 마차 쿠키 \$3.99	SANGARIA Hangeul Drink 상가리아 한글 드링크 \$5.99	KHUIS Kneading Shoulder Massager 귀희스 어깨 마사지기 \$59.99	SUNHAK Elec. Heating Chair Mat 선악 전기 온열 의자 매트 \$19.99
			KOMAX Blokize Food Container 코맥 바이오박스 식품용기 \$4.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pecial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pecial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최순실 일단 '직권남용' 적용... 뇌물·연설문 유출 수사 계속

모금 대가 규명이 관건...국정개입 수사는 걸음마
최씨 구속하면 24일 되기 전에는 1차 기소해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혐의와 최씨 실소유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당수 의혹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최씨 신병 확보 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의혹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롯데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 최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The Blue K)가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 두 가지다. 또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단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하여금 전경련, 대기업 등이 출연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갖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불법영득의사가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뇌물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가성'을 밝혀내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대기업 등이 최씨와 안전 수석으로부터 대가로 뭘 받아냈느냐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연을 결정한 전경련,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 SK그룹 대관담당 임원 등을 연달아 불러 자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또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 50곳 관계자를 모두 불러 자금을 출연한 경위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 안전 수석과 대기업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찾아낸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불법영득의사나 뇌물죄의 고의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의 정

도가 너무 강하면 제3자 뇌물수수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즉 최씨와 안전 수석이 특별한 대가 약속 없이 전경련과 기업을 압박해 자금을 출연하게끔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됐을 때와의 형평성은 양형을 통해 맞춰야 한다.

최씨 관련 의혹 중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는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은 횡령, 배임의 피해자가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측이 최씨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재단 관계자가 횡령, 배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최씨는 비텍 스포츠 유한회사와 더블루케이 등 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려 정씨 독일 생활지원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텍 스포츠 유한회사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로 K스포츠재단 사업을 수수해 재단 돈을 확보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독일 현지 호텔에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호텔은 승마선수인 최씨 딸 정유라씨(20·정유연에서 개명)가 독일에서 훈련을 할 당시 숙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더블루케이의 등기부에는 최씨 이름이 없지만 이 회사 역시 최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의심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 직원들이 최씨를

'회장'으로 불렀다는 증언, 최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또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이 회사로 출근해 정씨 독일 생활을 도왔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수정 등 국정개입 의혹은 현재 수사가 걸음마 단계인 상황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시켜 놓기도 했다.

국정 개입 의혹은 현재 특수1부 검사들이 진행하고 있다. 특수1부 검사들은 최씨가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밤부터 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

다.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기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최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은 늦어도 23일 까지 최씨에 대한 1차 기소를 마쳐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최장 20일 내에 피의자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20일 동안 현재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bilitykl@news1.kr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의혹	-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자금세탁 - 독일법인 설립 및 말·주책 구입 목적 외화일인출	- 횡령, 배임, 탈세 - 외국환법 위반
청와대 문건유출	- 대통령PC로 대통령연설문 초안 받아본 행위 - 외교, 안보 등 자료 받아본 행위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누설
정유라씨 고교·대학 시절 의혹	- 이화여대 학예 입학 의혹 - 지도교수 찾아가 폭언·협박 - 고교 교장·교사에 은봉투 전달 시도	- 업무방해 - 모욕, 협박 - 뇌물공여미수

영장심사 마친 최순실... "안중범과 공범 맞나" 양측 공방

변호인 "법원의 객관적인 결정 기대한다"
1시40분여 진행...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수완, 박동해 기자 =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1시간40여 분에 가까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왔다. 최씨 측과 검찰 측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측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재차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최씨는 받아들일 각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상태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장에게 진술했다, 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상태"라면서도 "눈물이 안 나겠나, 천장에서 지옥인데"고 말했다. 또 "(심장에 무리가 있어) 약과 진료를 필요로 한다, 고혈압·공황장애·우울증이다 있다"며 "구치소가 기본적으로 부실하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쌍방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영장 법정에서 있었던 양측 공방을 얘기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최씨는 안전 수석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잘 보면 (검찰 측 논리에) 어딘가 대단히 취약점이 있는 것이 보인다"며 "법률 구성에 무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장님이 법률 문제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향후 계획은)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 정해진다"며 "법원 결정만 기다리는 것, 재판장이 어쨌든 검찰이 해 놓은 기록과 우리 측이 주장하는 의견서와 변론을 종합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20분쯤부터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까지 약 1시간 40여분 가까이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이, 최씨 측 변호인으로는 이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혐

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bilitykl@news1.kr



최순실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9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k@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5 Acres 8 Bed
4.5 Bath
Asking **\$1,489,000**



Condo
28 Boylston Rd, Unit 1 Boston MA
동문향리 2 Bed 1 Bath 9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Asking **\$449,000**



Condo
10 Westlan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BR 1 Bath
recessed Ceilings, Best 2BR의 Sleep,
Hard T-wood의 거실은 13 피트 높이
Asking **\$291,000, \$2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상태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 1. 1.28 Flat 30801: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1,200,000 **SOLD**
- 2. 1.28 Flat 30802: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3. 1.28 Flat 30803: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4. 1.28 Flat 30804: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5. 1.28 Flat 30805: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6. 1.28 Flat 30806: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7. 1.28 Flat 30807: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8. 1.28 Flat 30808: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9. 1.28 Flat 30809: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0. 1.28 Flat 30810: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1. 1.28 Flat 30811: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2. 1.28 Flat 30812: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3. 1.28 Flat 30813: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4. 1.28 Flat 30814: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5. 1.28 Flat 30815: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6. 1.28 Flat 30816: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7. 1.28 Flat 30817: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8. 1.28 Flat 30818: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19. 1.28 Flat 30819: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 20. 1.28 Flat 30820: 1200sqft 2BR, Full Bath, Hardwood \$850,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8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무소영업중.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장기간의 수입
넓은 자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3野 "김병준, 수락의사 철회하라"...인준 불가 재확인

이상호 "김병준도 수락의사 철회해 명예 지켜라"
박지원 "총리 안 될 분인데 자꾸 빨려들면 혼선"

(서울=뉴스1) 박웅진, 서미선,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일)부터 진행 중인 개각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박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내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국민이 더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이 난국을 풀어갈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과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신임 국무총리로 내

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향해 "김 교수가 총리 적임자가 맞는지, 아닌지 논란을 피고 싶지 않다"면서 "스스로 수락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어차피 야(野)3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하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계속하겠다는 핑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통령이 안 바뀌면 소통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문제이지, 우리가 무슨 김병

준 교수·한광옥(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교수에 대해 "버리는 카드로 (김 교수를 내정한 뒤)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면서), 야당의 반응 등 이런 것을 보려고 한번 던져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분은 총리가 안 될 분인데 총리 될 것처럼 얘기에 자꾸 빨려들면 혼선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거들 박 대통령이 개각을 철회할 것을 야3당과 함께 요구한다"며 불응 시 야3당 차원의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김 교수를 내세운 박

대통령의 정국들과 시도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느니,

분권형 대통령 실험이라느니, 핵심정책 재검토 등을 흘리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pej86@news1.kr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차대통령, 한광옥 비서실장 내정... '통합형' 인사

이상호 "김병준도 수락의사 철회해 명예 지켜라"
박지원 "총리 안 될 분인데 자꾸 빨려들면 혼선"

(서울=뉴스1) 유기림, 박웅진, 박승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후임을 발표함에 따라 이른바 '최순실 파문' 속 청와대 인적 개편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74·전북), 신임 정무수석에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65·부산)을 내정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안중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정국 수습과 쇄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불과 닳새에 걸쳐 속전속결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주요 참모진인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수석 등의 사표를 수리했고, 최재경 민정수석과 배성례 홍보수석을 내정했다.

년민주당 대표, 제1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전북 전주가 고향이기도 하다. 전날 지명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노무현 정부 인사다. 최씨 파문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만큼 야권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사태 수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광옥 비서실장과 김병준 내정자는 향후 야당과 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날 개각 대상에 포함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역시 호남 출신이다. 박승주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 역시 한광옥 비서실장 발탁 배경에 관해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 신념으로 살아온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

"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신임 허원제 정무수석은 국제·경향신문, KBS, SBS 기자 출신이다.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18대 국회의원 등 언론·국회·정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경남 고성에서 고향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공천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정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국회 및 각계각층과 긴밀하게 소통·협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인사를 두고 여당은 기대감을 표출했으나 야당은 전날 개각에 이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맨날 야권 인사를 뽑아 세워놓고 통합 인사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또 다시 국면 전환용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이 막중함을 명심하고 헌신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girin@news1.kr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실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하단 입장 탈당 권유할 수도"

(서울=뉴스1) 진성훈, 양새롬 기자 =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가진 답은 하나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경우 총리로서 대통령 탈당을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으로 이 원천에서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 밖에 없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true@news1.kr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박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광양구이/돈가스/치킨캐스
야채/짜장/순두부찌개/김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제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상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박이/광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된장찌개/계란찜/공기밥/짜장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10% OFF**



투정하고 맛있는
수라 BBQ가 함께
소주 한잔 어떠세요?

수라 BBQ 보스톤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MBN News 8

MBN TV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희앵커의
MBN 뉴스8
전날을 넘어 오늘을 전하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29.99** /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 /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환요금 발생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TBO
티보플레이

다시볼때가 기억할 가요곡
KBS2 MBC CBS EBS SBS JTBC MBN OCN XBS
SBS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9:00-20:00 (KST) 781-391-5606
SBS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9:00-20:00 (KST) 781-391-5606
SBS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9:00-20:00 (KST) 781-391-5606
SBS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9:00-20:00 (KST) 781-391-5606
SBS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9:00-20:00 (KST) 781-391-5606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민과 톰코도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룡현
교정 전문의

민주당 "최순실 사태' 4일까지 당론결정... '단계별 요구' 예상

오늘 긴급 의총서 향후 대응방향 논의

(서울=뉴스1) 조소영,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오는 4일까지 당론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당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사와 동떨어지지 않게, 전략적인 것까지 고민해 내일 중지를 모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대부분이 퇴진, 하야, 탄핵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의총장 내에서) 이런 발언이 강성발언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이 우리 고려 내에 있고, 국회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의총) 같은 경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석함에 따라 당 총의라고 하기는 어려워, (의원들에게) 내일 의총장에는 가급적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은 공유되는 최소치에서 당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4일 발표될 '당의 중지'와 관련 "하야, 탄핵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단계별 요구'의 모습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단계별 요구'는 이날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6개월 거국내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친

박(親박근혜)계를 제외한 거국내각을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고, 이후에는 대선을 치르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와 같이 긴급현안 질의, 국정조사와 병행해, 정치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요구할 걸 정리하는 게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의총장에서 탄핵이나 하야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와 의견조율이 됐는지 등에 대해 "(오늘 의총은) 결정하는 시간"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의총장에서) 아무 말도 안했다"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의견들이 나오니, 나중에 집약된 게 나올 것"이라고만 말했다.

cho11757@news1.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도중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하야와 거국내각 요구 등을 놓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준식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정 대통령 위한 일 아냐"

"국정교과서로 새로운 분열 야기하려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우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별한 대통령을 위한 일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행과정을 되돌아보면 '순실교과서'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는 국민 통합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새

로운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은 아님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동안 고른 교육기회가 있었다. 최고의 기회는 최순실씨 자녀에만 있었고 효도는 대통령의 아버지에 게만 있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에 있어 교육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檢, '횡령·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수석에 4일소환 통보

수사팀 구성 3개월만... "출석 답변은 아직 '도나도나' 변론 수임료 부분 등도 조사 중"

(서울=뉴스1) 조재현, 김수완 기자 =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8월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수석을 둘러싼 의혹규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교고검장)은 우전 수석에게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우전 수석은 현재까지 수사팀에 이날 출석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전 수석이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전 수석은 자신과 아내,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티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승용차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있다.

우전 수석은 아내가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땅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의경으로 복

능단 의혹'과 관련해 우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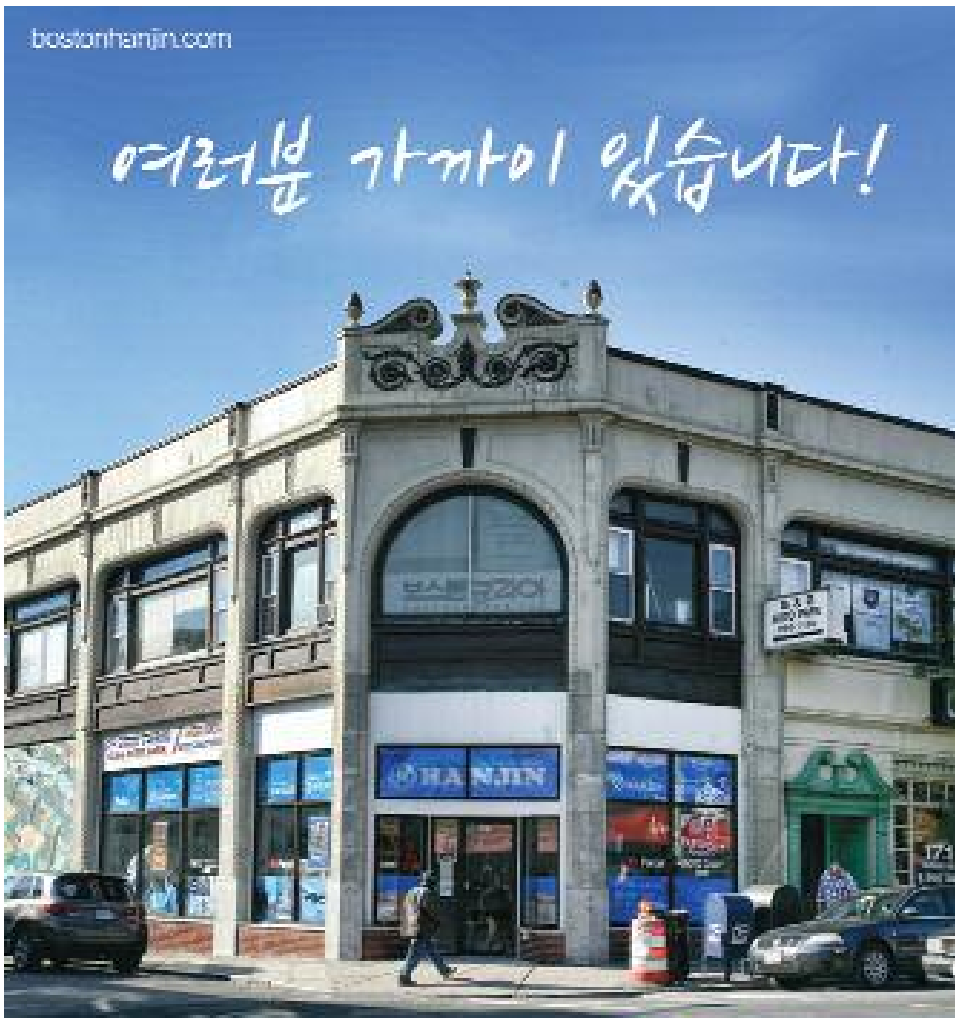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도 현재 우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우전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 물래 변론 의혹으로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해 '물래변론'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우전 수석이 사건 선임계에 적힌 수임액수보다 더 많은 대가를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cho84@news1.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입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I.T, Harve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 **617.982.7118**

(버클리 음대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3 DAYS ONLY
 Friday, Saturday & Sunday
NOVEMBER 25, 26 & 27
 from 9am to 8pm

BLACK FRIDAY

SALE

30% TO 65% off ENTIRE store*
 SOME EXCLUSIONS APPLY

FREE Gemstone
 with any purchase*

We pay your sales tax!

*Multi-purchase based on terms of service drop off. Excludes diamonds.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offers. Limit one per customer.

\$500 OFF*
 Any Remount or Redesign
 of \$1,000 or more

*Multi-purchase based on terms of service drop off.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offers. Limit one per customer. Valid thru 12/31/15

\$100 OFF*
 Any purchase of \$250 or more

*Multi-purchase based on terms of service drop off.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offers. Limit one per customer. Valid thru 12/31/15

\$20 OFF*
 Any Jewelry or Watch Repair
 of \$30 or more

*Multi-purchase based on terms of service drop off.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offers. Limit one per customer. Valid thru 12/31/15

PRINCESS DIAMONDS
 FINE JEWELRY
 34 Cambridge Street | Burlington MA 01803
 (781) 382-4787 | www.princessdiamonds.net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2월 28일)
1개월 완성 집중 프로그램

MA Best Nail School **yelp** Reviews 5stars

(MA주 한인 운영)
네일 자격증 학원

- > 저렴한 Tuition
-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일반 프로그램
 4주과정: 9:30AM-4PM
 5주과정: 4:30PM-9:30PM

현재 학원내에서 진행중인 주말 미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네일아트의 예술성의 가능성을 넓히고 순수미술적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강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WEEKEND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에의 가능성이 열리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한국어 문자 가능)
617.895.9768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패트리어츠, 충격적인 트레이드 단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시즌 중 트레이드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 31일 깜짝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정규시즌 경기의 절반을 소화한 시점에서 7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패트리어츠는 핵심 수비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내고 3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을 받아왔다.

빌 벨리치 감독은 제이미 콜린스를 브라운스로 트레이드 시켰다. 콜린스는 젊고(27세) 재능이 있는 뛰어난 라인배커다. 게다가 패트리어츠가 보상으로 받은 것은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수나 1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이 아닌 고작 3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이다. 이 때문에 콜린스의 트레이드는 많은 NFL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패트리어츠는 2013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콜린스를 선택했다. 탁월한 신체 조건과 운동 신경,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센스까지 겸비한 콜린스는 패트리어츠 수비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지난 시즌 콜린스는 89개의 태클과 5개의 펄브 유도를 기록했다. 모두 팀 내 최다 기록이다.

올해도 콜린스는 첫 4경기에서 모든 스냅에 투입되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는 패트리어츠 수비 전체 스냅의 62%만 출전했는데, 월요일에 트레이

드가 시행된 것을 보면 이미 콜린스의 역할이 지난 경기에서부터 줄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패트리어츠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팀 감독들이 콜린스를 패트리어츠 최고의 수비수로 꼽았다. 유일하게 시즌 0승(8패)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운스는 콜린스의 합류로 즉각적인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콜린스의 트레이드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모두 의아해 했지만, 이후 트레이드의 배경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ESPN은 콜린스가 패트리어츠와의 계약 연장 협상 과정에서 본 밀러만큼의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콜린스는 올해 시즌을 마지막으로 루키 계약이 끝나 내년 봄에는 자유 계약 선수가 될 예정이었다.

밀러는 지난 시즌 브롱코스를 수퍼볼 우승으로 이끌고, 수퍼볼 MVP까지 거머쥔 리그 최고의 라인배커다. 밀러의 연봉은 현재 6년 동안 1억 1450만 달러이다.

패트리어츠의 스타 쿼터백 탐 브래디를 포함하여 패트리어츠 내에서 밀러 수준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없다. 게다가 콜린스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밀러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고의 신체 조건과 운동 신경을 지닌 제이미 콜린스가 브라운스로 전격 트레이드 되었다

또한 패트리어츠의 코칭 스태프로 2년간 일했던 마이크 롬바르디는 트위터 통해 콜린스가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멋대로 플레이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한두 번 지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콜린스는 1년 내내 벨리치 감독의 지시를 어겨왔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크게 제약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놔두는 감독이 있는 반면, 벨리치 감독 같이 작은 것까지 지시하고 간섭하는 감독이 있다. 콜린스의 새 팀인 브라운스의 휴 잭슨 감독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패트리어츠 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 받는 콜린스

를 트레이드 시킨 후 가진 인터뷰에서 벨리치 감독은 "전문가로서 판단했을 때 콜린스가 없는 것이 패트리어츠에 더 좋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터뷰 대답이 짧기로 정평이 나있는 벨리치 감독은 콜린스가 없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jsi@bostonkorea.com

시카고 컵스, 드라마같은 승부로 끌어낸 '염소의 저주'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108년과 68년의 한이 담긴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2016 월드시리즈는 역대급 명승부로 남았다. 그리고 최종 승자 컵스는 지긋지긋했던 염소의 저주를 깨뜨렸다.

컵스는 2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 7차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8-7로 승리했다.

이번 시리즈는 '한풀이 매치'로 일컬어졌다. 1908년 이후 한 번도 우승을 못한 컵스와 1948년 이후 무관인 클리블랜드, 어느 팀이 이겨도 숙원을 풀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티켓 가격도 폭등했다. 특히 1945년 이후 71년만에 월드시리즈를 치르게 된 컵스의 경우 홈구장 리글리필드에서 열리는 3-5차전 티켓 가격이 평균 3000달러(약 340만원)까지 올라갔다.

경기 내용 역시 흥미진진했다. 정규시즌 최고 승률(103승58패-0.640)을 기록한 컵스와 '언더독' 클리블랜드의 대결이었지만 첫 4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3승을 따냈다. 클리블랜드는 선발 요원 대니 살라자르와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3인 로테이션'을 돌리는 가운데서도 불펜의 힘과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컵스를 눌렀다. 에이스코리 클루버는 1, 4차전에서 내리 승리를 따냈다.

4차전까지 1승3패로 밀리자 컵스의 저주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아졌다. 특히 홈에서 열린 3, 4차전을 내리 내주면서 컵스의 분위기는 바닥을 쳤다.

그러나 컵스의 대반격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컵스는 에이스 존 레스터의 호투를 바탕으로 홈에서 열린 5차전을 3-2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다.

6차전은 원정으로 넘어왔지만 컵스의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다. 에디슨 레셀이 만루홈런을 포함해 6타점을 쓸어들었고 9-3으로 승리했다. 승부는 결국 마지막 7차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마지막 경기까지도 드라마 그 자체였다. 컵스가 초반 클루버의 공략에 성공하면서 5-1, 6-3까지 앞설 때에도 컵스의 손쉬운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8회 2사까지 레스터가 버티었고, 그뒤엔 강속구 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이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채프먼이 무너지면서 또 한 번 승부가 미궁에 빠졌다. 채프먼은 8회 2사 1루에서 1타점 2루타, 2점홈런을 연거푸 허용하며 고개를 떨궜다. 여기에 9회초 컵스가 1사 3루의 기회를 무산시키면서 흐름은 클리블랜드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컵스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연장 10회초 상대의 고의볼넷 작전을 잇달아 무너뜨리며 2점을 뽑았고, 10회말 1점을 내

줬지만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고 극적인 우승을 일궜다.

최종 스코어는 8-7,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로 알려진 '케네디 스코어'였다. 승패를 떠나 전세계 야구팬들을 들뜨게 했던 최고의 명승부였다.

컵스의 테오 엡스타인 사장은 또 하나의 '신화'를 썼다.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단장 자리에 올랐던 그는 지난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유명한 '밤베노의 저주'를 깨뜨릴 때 팀의 단장이었다. 당시 보스턴은 뉴욕 양키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3패후 4연승을 내달리는 등 기적과도 같은 승부를 이끌

었다.

2012년 컵스로 자리를 옮긴 그는 공격적인 투자로 컵스를 강팀으로 가다듬었다. 그리고 부임 5년차 시즌인 올해, 길고 길었던 컵스의 저주마저 깨뜨리며 성공가도를 이어갔다. 올해 월드시리즈 상대팀 클리블랜드의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 2004년 보스턴의 사령탑이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올해 월드시리즈는 향후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명승부이자 각본없는 드라마 그 자체였다. 그리고 끝내 승자의 자리에 오른 컵스는 '명품 드라마'의 주연으로 우뚝섰다.

starburyny@news1.kr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은 뒤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 기뻐하고 있다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yons Boston Korean Church

초대합니다

보스턴 한인성당
설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주제: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장소: 성 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 성당
45 Ash St., Newton, MA 02466

때: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터전입니다 (행 2:17)

주일예배 / 오후 2:00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30
송년 / 송년 / 송년 / 송년부설회 / 생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00 | LIFE 모임 / 주일 10:00

담당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일일경축회
유년부, 인형극 공연
주노 (David) 박 목사 권도사
정년/130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WO

담당 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61 Dr.
New York Univ. MAJ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ngjelgwo.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사별기도회: 오전 8:00(9~11)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6.4488
<http://www.wkmc.org>

담당목사: 김현터
817.73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신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켜줍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방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영접하십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을 영접한 삶을 살아야합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취회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영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2000년도 프로그램, 가치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미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적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료를 더하는 최권도 현수대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한인식당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781-860-0171 (Kay)

뉴튼, 입주나 출퇴근 하면서 집안 살림 하실 분. 맞벌이 부부와 중학생, 대학생, 개한마리 T. 617-899-4959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T. 781-264-8037

Care Cleaners에서 일할 분 구함

Chelmsford Store:
Store Worker(8시간에서 12시간)
프레서, 드라이버(12pm - 6pm)

Western Store:
카운터(Full time)

연락처: 603-401-011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에 있는 미용실 매매합니다. 좋은 장소, 가격 협상 가능. T. 617-818-5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NAILS SALON FOR SALE

Nails Salon has been in business for over 16 years. In Stop Shop plaza (soon to be Target). Has 7 pedicure chairs and 7 tables. Still space for future expand. Locate in Pawtucket, Rhode Island. If you're interested, please contact me at this number. Thanks!
ThaiHan
909.569.3777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벨라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부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부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인문학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아동보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연합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민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미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금융)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골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유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뷰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퍼트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은심경성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이해필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보스턴컨테드케어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781-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루덴	

'급성 심근경색증'과 '심방세동'에 관한 흔한 궁금증 3가지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남성 55세, 여성 65세 이상에서 심장 질환 위험도 급증"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나이든 분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인 심장질환에 대해서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다.

'심장 질환'은 한국 국민의 사망원인 2위로 특히 남성 55세, 여성 65세 이상에서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주에는 심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50대 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흔한 궁금증 3가지

1. 급성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으면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혈류장애가 발생한다. 이때 심근에 영양분과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괴사되는 질환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50대 남성의 높은 사망원인을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흡연과 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적절한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은 필요하다. 다만 심장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혈압과 당뇨



병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하며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협심증을 앓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슴 주위의 빠른 통증을 야기하는 병을 일컬어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표면을 둘러싼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협심증이 올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도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원인이다. 차이가 있다면 협심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통증이 발생하는 단계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다.

협심증 환자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3.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을 찾기 전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3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가슴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숨이 차거나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위장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어지럼증이나 실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뇨나 고령 환자에서는 가슴통증 없이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방세동의 흔한 궁금증 3가지

1. 심방세동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기나요?

부정맥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심방세동은 심장 근육이 약하고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병이다. 일반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 만성 폐질환, 심장판막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 발생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과음 등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크가요?

심방세동 환자의 심방 안의 혈류가 느려지면서 정체된 혈액이 서서히 굳

어 혈전이 생기기 쉽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오게 된다. 심방세동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에 걸릴 위험이 5배나 높다.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은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자주 재발하며, 사망률도 심방세동이 없는 경우보다 2배가량 높다. 따라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

3.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나요?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뇌경색, 혈전 색전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심부전이나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라면 뇌경색과 혈전 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심방세동 증상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특별한 상황(뇌출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 각한 출혈이 있는 상황 등)이 아니라면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비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환자도 있다. 고령이면서 혈전 생성과 출혈의 위험이 동시에 커 약물 복용이 어렵거나, 심각한 출혈을 경험한 경우이거나, 적절한 항응고제 복용에도 뇌경색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대부분 혈전이 생기는 부위인 좌심방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혈전의 이동을 막아주는 좌심방이 폐쇄술이 대표적인 비약물치료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최소화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 \$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메디케어, 학교/유학생/여행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3色 로코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JTBC가 '판타스틱'에 이어 다시 한 번 로맨스 드라마로 안방을 채운다. 다양한 커플들의 현실적 사랑이 공감과 유쾌함으로 다가온다.

28일 저녁 8시30분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극본 이남규, 김효신, 이예림/연출 김석윤/이하 이아바)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뒤 SNS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교감하는 내용을 그린다.

이선균은 결혼 8년 만에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는 남편 도현우로 분한다. 아내 송지효와 늘 이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고 믿었던 만큼 그 충격은 배가되고, SNS를 통해 아내 불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선균의 아내이자 슈퍼워킹맘인 정수연은 배우 송지효가 연기한다. 부족함 없는 남편과 8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그녀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아바'를 관통하는 핵심 줄거리이기도 하다.

이선균과 송지효는 완벽했던 부부가 금이 갈 수밖에 없었던 미스터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해 풀어나간다. 앞서 김석윤 감독은 "일본 웹사이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

기를 극화한 거다. 처음에는 불륜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까 착한 드라마였다. 언젠가 유쾌하게 만들면 좋겠다 싶었다"며 "2016년 한국 결혼 제도하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유쾌하게, 때로는 비장하게 그려볼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김희원과 예지원은 바람 잘 날 없이 티격태격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이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깨져있는 두 사람은 아이슬슬하면서 살벌한 로맨스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이상엽과 보아는 기혼남과 돌싱녀의 밀당 로맨스를 펼칠 예정. 연애가 최우선이 아닌 건어물녀 보아는 자신에게 직진하는 이상엽과 묘한 '썸'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이들의 만남에 대한 결말 역시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아바'는 바람을 주제로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더없이 솔직하고 현실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세 커플의 이야기는 사랑의 여러 형태에 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면서도, 다양한 즐거움으로 화면을 채울 예정이다.

reddgreen35@news1.kr



'낭만닥터 김사부' 한석규의 메디컬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낭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한석규 분)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의사 강동주(유연석 분), 윤서정(서현진 분)와 만나면서 펼쳐가는 메디컬 드라마다.

한석규는 21년 만에 현대물 드라마에 출연한다. 의학 드라마로서도 처음이다. 그는 출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작가님이 쓰신 작품 의도가 참 좋았다"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왜 이렇고 사는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라는 문장을 직접 읽었다.

한석규는 출연 이유를 밝히면서 직업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내가 91년도에 MBC 공채생으로 들어갔고 대학 때 연기 전공을 했다. 올해 쯤 그런 질문을 해왔다. 내 직업이 뭐가, 연기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다른 직업은 답이 나오는데 연기자는 답이 딱 안 튀어나오더라"라고 했다.

그는 "바로 그런 점이 직업관, 어떠한 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다.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나한테 이런 작품이 제의가 왔다"고 했다.

한석규는 또 "적절한 시기에 맞는 작품이었다. 평소에 품은 마음을 시청자들에게 연기를 통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작가님, 연출자가 생각하는 것을 연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고 보는 분들이 공감하는 바람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연석은 의학 드라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영화 '상의원'에 이어 또 다시 만난 한석규도 출연의 이유가 됐다. 그는 "한석규 선배님이 한다길래 고민할 게 없었고, 상대 여배우가 서현진씨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서현진은 전문직 드라마가 처음이고, 그 첫 전문직 드라마를 의학 드라마로 택했다. 서현진은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뛰어들었다. 일반 대사를 하는 것보다 외의야 할 양이 3배였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많이 했다"며 "투샷에서는 내 손이 나갈 수도 있도록 손기술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 촬영을 해보며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한석규는 김사부의 설정인 트리플보드를 달성한 의사가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밝히며 이것을 통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말했다. 그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큰 고민거리였는데 가짜를 통해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답이었다. 진짜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건 논픽션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바로 드라마이고, 논픽션의 힘이 라는 생각을 했다. 트리플보드 의사라는 건 없다고 한다. 그런 김사부를 통해 과연 시청자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다. 진짜 스승이 무엇인지도 던져볼만한 물음이다"고 이 드라마를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낭만닥터 김사부'는 오는 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닥터 스트레인지', 마블 흥행 역사 다시 쓸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는 미국의 영화 비평 전문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신선도 100%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 24일 진행된 언론 시사회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멀티버스의 스크린 구현과 다차원을 표현한 환상적인 시각효과에 영상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불의의 사고로 절망에 빠진 천재 신경외과 의사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깨닫고 세상을 구원할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을 알리는 작품으로 차원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놀라운 시각효과와 현란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팬덤을 이끌고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함께 팀다 스윈튼, 레이철 맥아담스, 매즈 미켈슨, 치웨텔 에지오포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의 2018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합류, 새로운 어벤져스 멤버로 출연할 예정이라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0월 24일 ~ 2016년 10월 30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7.0%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3%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1.7%
4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8.8%
5	KBS1	KBS9시뉴스	16.5%
6	KBS2	해피선데이	13.3%
7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2.7%
8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2.5%
9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12.1%
10	MBC	무한도전	11.8%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5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6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TT	TWICE
02	너너너너너	아이오아이
03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04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5	어떻게 지내	Crush
06	내 옆에 그대인 걸	다비치
07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8	숨	박효신
09	돌아오지마 (Feat. 용준형 Of 비스트)	헤이즈
10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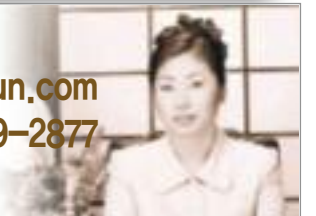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2	7		8	3	
7	4				6			
		8						
4		7	5				2	
8	2		6		7		5	3
	6				4	1		9
						7		
			9				4	1
	8	4		5	1			2

11월 6일 - 11월 1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p> <p>●운수: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 잘 활용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애정: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인연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소띠 마음을 활짝 열고</p> <p>●운수: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범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p> <p>●운수: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금전:뭔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토끼띠 새로운 변화를</p> <p>●운수: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금전: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멋진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p>	<p>용띠 별집을 건드린 격이</p> <p>●운수: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별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금전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p>뱀띠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p> <p>●운수: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금전: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애정: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p>
<p>말띠 뜻밖의 행운이 오니</p> <p>●운수: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양띠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p> <p>●운수:말을 안 해도 혼자서 척척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편안합니다. 생활에서 오는 만족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전: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8일 길일, 9, 12일 주의.</p>	<p>원숭이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p> <p>●운수:칭찬을 해줄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상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닭띠 흔들리지 말아야</p> <p>●운수: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금전: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8, 12일 주의.</p>	<p>개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p> <p>●운수: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전:들어올 돈이 자꾸 미루어지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홀려간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계절을 타는지 지니간 추억에 젖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돼지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p> <p>●운수: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금전:족만 믿고 거래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애정: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무한도전' 멤버들, 무중력 비행 미션 성공?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MBC '무한도전'에서 우주인 훈련 중 하나인 무중력 비행을 탄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처음으로 자기 몸이 공중에 뜨는 무중력 경험을 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멤버들은 무중력 상태에서 물을 마시거나 서로의 몸을 날려주거나 슈퍼맨 포즈를 취하는 등 다양한 미션까지 선보였다. 무중력 비행을 마친 멤버들은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를 찾아 중력 훈련, 소유즈 우주선 탑승, 우주정거장까지 둘러봤다.

우주정거장에서 실제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을 만난 멤버들은 우주인을 통해 생생한 우주생활 경험담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들을 쏟아냈다. 우주인이 우주정거장에서 직접 찍은 지구 영상을 본 멤버들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그래비티' 특집은 오는 5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이승환 "현수막 불법 광고물 처리, 다른 방법 궁리 중"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가수 이승환이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소속사 건물에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철거했다.

최근 이승환은 소속사 드림팩토리 클럽이 있는 서울 강동구 건물에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후 1일 이승환은 SNS에 "항의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다녀가기도 했고 본인 건물에 거처하는 것이라도 불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철거한 상황"이라며 "내일 구청에 문의 후 (30㎡ 이하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

거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수막은 30㎡ 이하로 제작됐다.

다음날인 2일 이승환은 "강동구청에 문의 결과, 강동구에선 18곳의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외 옥외 현수막은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 광고물로 처리된다고 한다. 다른 방법을 궁리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날 오후 강동구청에서 해당 건물에 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불법 가건물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저건 다 신고된 합법이다. 등기부등본에도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한국에 30년 살았는데 머리 굳어서..." 폭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박준형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백했다.

2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는 박준형, 박재범, 이국주, 슬리피가 출연해 입

담을 뽐냈다. 이날 MC들은 박준형과 박재범 중 누가 한국어를 더 잘하냐고 물었다. 박준형은 순순히 박재범이라고 말하며 "나보다 더 일찍 왔다"고 강조했다. 박재범이 더 어린 나이에 와서 한

국어 습득 능력이 더 높았다는 것. 그러자 김구라는 "30년 살았잖아"라고 말했고 박준형은 "30년 살았는데 머리 굳어서 살았잖아"라고 버럭 해 웃음을 자아냈다. uu84@news1.kr



St. Mary's Internal Medicine
한 성 식 내과

이제는 **보스톤**에서도 **한인 내과 전문의**에게 **맞춤형 진료**를 받으세요

Office Hour
 월-금요일, 8:30-5

한 성 식 내과 전문의
 Sungelk Hahn, M.D.

6 Essex Center Drive Suite 304
Peabody, MA 01960

TEL : 978.854.6376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ys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박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돼먹은 영애씨15' 영애의 러브라인 흥미진진해질 것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막돼먹은 영애씨15'가 첫 방송부터 스펙타클한 영애의 현재를 보여줬다.

지난 31일 밤 11시 방송된 tvN '막돼먹은 영애씨15' 1회는 돌아온 이영애(김현숙 분)의 고군분투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2.7%, 최고 3.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애의 회사가 망한 줄도 모르고 제주도에 여행을 온 가족들과 어떻게든 생활고를 들이지 않으려는 영애의 눈치 작전은 웃음을 자아냈다. 가족들과 승마 체험장을 찾은 영애는 회사를 망하게 한 주범인 황사장과 마주치자 그를 잡기 위해 말을 타고 추격전을 벌였다.

영애는 황사장을 잡기는 커녕 말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다. 서러움도 잠시 중국에서 사업에 성공해 금의환향한 승준(이승준 분)이 대신 합의금을 내고 영애를 구해주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궁금증을 더했다.

'막돼먹은 영애씨15' 제작진은 "2회부터는 주인공 영애를 중심으로 낙원사와 새롭게 등장하는 해물포차까지 등장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며 한층 풍성한 에피소드가 전개될 예정이다"며 "영애와 승준의 러브라인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됐는지, 또 새 얼굴 조동혁이 영애와 어떻게 엮이게 되는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옥중화
2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3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4	MBC	불어라 미풍아
5	SBS	우리 갑순이
6	SBS	사랑이 오네요
7	MBC	좋은사람
8	KBS	여자의 비밀
9	MBC	다시시작해
10	SBS	당신은 선물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신규 방송

1	KBS	우리집에 사는 남자
---	-----	------------

티보플레이 10월 4째주 최신 영화

1	아수라	정우성, 황정민
2	그물	류승범, 이원근

'아수라' 정우성 X 주지훈 훈훈한 두 남자의 브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아수라'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정우성과 주지훈의 브로맨스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두 남자의 훈훈한 케미스트리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아수라'(감독 김성수)에서 정우성은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악덕 시장 황정민(박성배 역)의 온갖 더러운 뒷일을 처리해주는 한도경역을 맡았다. 검찰에게 자신의 약점을 들킨 후 자신을 대신해 아끼는 후배 형사 주지훈(문선모 역)을 황정민의 수행팀장으로 보낸다. 주지훈은 친형처럼 따르는 정우성의 말에 형사를 그만두고 황정민 밑으로 들어가고 악의 소굴에 적응해간다.

정우성은 동생 같은 주지훈이 황정민 밑에서 점점 자신을 대신해 가는 것이 불안하고, 주지훈은 아직도 자신을 아무 것도 모르는 후배로 취급하는 정우성이 거슬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형제보다 더 끈찍하게 생각하는 우정을 나누지만 서로가 점점 더 악에 젖어갈수록 우정보다는 황정민을 둘러싼 미묘한 경쟁 관계로 변해간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여백과 공백의 미

무엇인가 가득하면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든 자연이 있는 공간이든 느낌은 비슷하리란 생각이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유독 이 여유로운 삶의 기대감은 어찌면 삶의 최대의 최고의 행복이라 여겨질 일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시간에 쫓기기에 넉넉한 자연들을 벗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되었다. 누림의 행복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리라.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오늘도 바쁜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 선조들의 옛 그림들을 보노라면 참 지혜로웠음을 또 깨닫는다. '점(點)' 하나 제대로 정성들여 잘 그려 넣으면 그 속에서의 참 뜻은 어찌 그리도 심오하던지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한 것이다. 그 '점(點)' 하나의 그림을 위해 여백(餘白)의 미(美)를 맡껏 살린 것 이리라. 작가가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기에 넓은 생각과 생각이 만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리라. 오고가 는 마음의 울림의 소릴 그 공명(空鳴)의 소릴 들을 수 있는 것이리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면 그 하늘의 푸름을 어찌 알 것이며,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어찌 고요만으로 아름다다 말 할 수 있을까. 구름이 있어 흐르고, 그 흐르는 구름에 파란 하늘이 가까이 있음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바쁜 생활 속에서 마음의 그림 한 점씩 각자의 가슴 속에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삶의 더욱 바쁘다고 느껴질 때, 힘겹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이 생활의 여유를 위해 책장에 넣어두었던 책도 꺼내어 읽어보는 연습도 하고, 가끔씩 운전을 하다 파란 하늘도 한 번씩 올려다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삶 속에서의 여백(餘白)과 공백(空白)이 주는 아름다운 날을 맞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그 누가 내 대신 삶을 살아줄 수 있겠으며 누가 내 대신 힘겨운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을까. 다만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피해가지 않고 당당히 맞이하고 만나고 나누고 누리는 삶이길 매일을 그렇게 소망해 보는 것이리라.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깜박이듯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나듯이, 이 세상의 낮별이 되어 세상과 더

불어 환한 빛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이요, 꿈이요, 소망인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의 문을 닫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넓다는 의미가 꼭 여백(餘白)이나 공백(空白)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무엇인가 '채워질 목적의 그 무엇'이 있을 때만이 '여백(餘白)과 공백(空白)의 미(美)'가 더욱 값진 것임을 새삼 또 깨닫는다. 시간이 넉넉하나 할 일이 맡겨지지 않아 실직자로 있는 사람에게 '많은 시간'의 의미는 너무도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삶의 여정 중 혼자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서로에게 나누지 못한 죄목으로 남는 것이리라.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참 행복'을 느끼는 동물인 것이다. 내 것을 나눌 때만이 참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마음의 여유는, 마음 깊은 곳에 여백(餘白)과 공백(空白)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 자리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이며 그 과제를 통해서 여유로움

의 누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혼자서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눌 때만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이 여유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쳐지는 일일 게다.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배려의 시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성난 파도가 까만 밤 해일에 까무러치듯 놀란 후의 이른 아침의 고요한 바다인 것처럼 말이다. 그 까만 밤의 성남이 있어 이른 아침의 고요의 여백이 더 아름다우리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점씩 남은 고통의 시간들이 안타까움의 슬픔들이 싫어서 도망하기 보다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 삶의 일부이기기에 더욱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밀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함께 나눠 가는 힘겨움들 속에서 더욱 '여유로움의 미학'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으리라. 그 고통들도, 그 슬픔들도 모두가 삶의 기쁨과 행복의 한 부분이기기에 더욱 더 '여백(餘白)과 공백(空白)의 미(美)'를 깨달으며 살아가리라.



'16'이 빛이시냐?
색보다 사리판단이 먼저
[서] 2016. 10

한담객설閑談客說: 색맹色盲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세월은 가지말라 해도 잘도 간다. 계절은 바뀌지 말라 해도 잘도 바뀐다. 그래서 그런가 한창 가을이 깊어 간다. 오히려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 계절은 버리고 떠난 지난 여름을 아예 기억하기 싫은가 보다.

지난 여름 푸르던 색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렇다고 투명해 진건 아니다. 여름색은 붉은 가을빛깔로 치환되었다는 말이다. 단지 몇가닥 푸른색 잔재만 지난 여름을 간신히 증거한다. 보스톤의 가을은 여름의 빛깔이 바랜 대신,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이다. 너무 눈이 부셔 눈을 뜰 수도 없다. 누구의 표현대로, '불타는 장관'을 보여준다.

단풍은 이제 낙엽되어 떨어진다. 텅빈 나뭇가지만 차츰 썰렁해진다. 비우기 위해 단풍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버텼던가. 사그러 들기 위해 붉은 빛을 뿜어냈던 말인가. 성급히 떨어진 낙

엽은 누렇다 못해 오히려 회색빛이 감돈다. 비우고 버려지는 색깔로 변했다.

봄 산에 새잎이 난다.
"어머니, 비었던 산이 /초록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네 /초록이 채워지는 빛깔이라면 /가을날 붉고 노란 단풍잎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그것은 /비워지는 색깔이지요."
"그래, 그렇구나."
(하청호, 초록은 채워지는 빛깔이네)

20세기 후반, 영국 과학자 돌튼이 색맹色盲이라 했다. 붉은 색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붉은색은 초록이 긴 얇은 황색으로 보였다던가. 글쎄, 물리학을 했기에 망정이지, 화학을 공부했다 했다면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하긴 적색맹이라해도 색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란다. 붉은색은 진갈색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니 색은 색이로되 남들이 보는 색과 같지 않다. 돌튼도 보스톤의 가을 짓붉은 단풍을 보고 눈을 뜨지 못했을 것

인가?
삼국유사에 나온다. 선덕여왕이 아직 공주일 적이라. 모란 그림을 보고 한마디 했단다. 모란 주위로 나비가 그려지지 않았으니 꽃에는 향기가 없다. 향기가 없을 것이란 해석엔 총명함이 반짝인다. 모란은 붉은 색이다. 선덕여왕도 붉은 색을 붉은 색으로 보았을 것인가.

한국에선 칙칙한 색깔의 소식이 들려온다. 설마 그 분도 모란은 붉은색으로 볼테지. 행여 그 양반도 남들도 다보는 색을 달리 보는 건 아니겠지. 가을색깔은 비워야 하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낙엽은 굵어모아 치워야 한다. 비에 젖는다면 낙엽은 지저분해 보이고, 바람에 흩날리면 옆집에 폐가 되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제 곧 지저분한 색은 회색과 흰색으로 뒤덮힐 것이다. 차라리 흰색으로 온세상이 덮히는 게 낫겠다. 색맹이건 색약이건 흰색은 모두 같은 흰색으로 보일테니 말이다. 그런데 녹색맹도 있다던가?

그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7:3)



MAYOR'S OFFICE
FOR IMMIGRANT
ADVANCEMENT
Martin J. Walsh, Mayor of Boston

JOIN MAYOR MARTIN J. WALSH
AND THE OFFICE FOR IMMIGRANT ADVANCEMENT FOR

We Are Boston Gala

TUESDAY, NOVEMBER 29, 2016
BOSTON PARK PLAZA

Honorary Chair: **Mayor Martin J. Walsh**

Co-Chairs: **Rob DeMartini,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Steve Melia, TripAdvisor
Micho F. Spring, Weber Shandwick

Co-Hosted by:



SPECIAL GUEST APPEARANCE BY
"ORANGE IS THE NEW BLACK" STAR

DIANE GUERRERO

A NIGHT OF MULTICULTURAL MUSIC AND DANCE
FOOD BY IMPROPER BOSTONIAN * BOSTON'S BEST

HONORING RICHARD E. HOLBROOK OF EASTERN BANK, JOHN B. CRUZ OF CRUZ COMPANIES
AND CLEAR CHANNEL OUTDOOR

FOR TICKETS AND INFORMATION CONTACT AJ WILLIAMS EVENTS (617) 267-2244

OR VISIT OUR SITE FOR TICKETS

MOIA.EVENTBRITE.COM

Gala Sponsors:



Media Sponsors: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0. 새 길을 찾아서 (2)

인디언문제 담당국의 175주년 기념 반성문 (계속)

나는 미국을 위하여 발언하지도 않고 미국을 대신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지만 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인디언국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과거에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러한 잘못과 그로 인한 결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으니 인디언국의 대표로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릴 뿐이다. 비록 이러한 과오는 지금의 우리 직원들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유산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강한 도덕적 의무를 인정한다. 우리는 인디언의 희망과 번영을 위하여 새롭게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고자 한다. 인디언에 대한 혐오나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국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인디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을 다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디언부족의 권익을 거스르는 잘못된 지도자를 결코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인디언 묘사를 배격한다. 우리는 앞으로 결단코 인디언의 언어와 종교와 의식과 생활 방식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들을 잡아가서 인디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이 지은 죄가 너무 무겁기에 용서해 줄 것을 바랄 수는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함께 치유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인디언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부족과 이야기할 때 이제 죽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알려주고 자녀들에게는 수치와 공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젊은이들에게는 분노를 희망과 사랑으로 바꿀 것을 말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다함께 일곱 세대에 걸친 눈물을 닦아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미래의 지도자들이 인디언담당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디언국이 인디언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자유와 진보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인디언국은 1824년 인디언과 백인간의 전쟁 시기에 태어났지만 2000년 이후로는 인디언 번영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기숙학교 강제 수용에 대한 배상 판결

2005년 캐나다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액 조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버나드(Nora Bernard)여사가 1993년 캐나다 정부와 실제로 학교 운영을 맡았던 4개의 종교단체(가톨릭, 성공회, 장로교회, 연합교회)를 상대로 인디언기숙학교(캐나다에서는 residential school, 미국에서는 boarding school) 재학 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7만 명을 대표하여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2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캐나다에서는 버나드 여사의 케이스 외에도 유사한 소송이 많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배상금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된 종교단체, 특히 성공회는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캐나다의 기숙학교 제도는 1870년대 당시 국회의원이던 다빈(Nicholas Flood Davin)이 주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인디언들을 백인 중심의 주류사회로 동화(assimilation)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인디언 어린이들을 그들의 전통주거시설인 위그웬(wigwam)으로부터 나오게 한 후 기숙학교로 강제로 수용하여 그들의 고유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영어만을 쓰게 했다. 그들의 고유 풍습을 버리게 함으로써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백인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1996년 마지막으로 기숙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기숙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종교단체가 맡았는데 학교의 생활환경은 지극히 열악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갔고 살아남은 학생들도 성적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지도 못함으로써 입게 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하여 훗날 약물중독, 가정폭력, 실업,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기숙학교를 나온 인디언들은 문명의 교차로에서 방황하는 형국이 되

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옛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인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기숙학교로 인하여 피해를 본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숙학교 스캔들이 캐나다에 비하여 늦게 이슈화되었다. 2003년 원 스타(Sonny One Star)와 다른 다섯 명의 수우족 인디언들은 연방정부와 로즈버드 수우 인디언 보호구역(Rosebud Sioux Indian Reservation) 내에 있던 성프란시스코 미션기숙학교(St. Francis Mission boarding school)를 대상으로 인권운동가인 프리셔(Gary Frischer)의 도움을 받아 2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학생들이 학교의 신부, 수녀, 교사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육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6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소송의 대표 원고인 원스타의 이야기가 게재되었다. 그는 6살에 이 학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고 한다. 다른 인디언기숙학교에서 인디언 어린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터라 손자가 학교로 끌려가자 할머니는 죽음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 매를 맞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고 곧 성적 학대가 시작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2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번에는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金珍娘주의 남자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화랑세기(사다함조)에 자세하게 대부분이 나오지만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금진의 남자들을 한군데 모아 본다. 금진의 아버지는 위화랑이다. 어머니는 오도부인이다. 위화랑의 정처는 준실부인이며 오도는 후처이다. 오도는 옥진과 금진을 낳았다. 그들은 모두 범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옥진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한 명이었다. 나중에 옥진의 외손녀인 미실의 용모를 묘사한 장면을 보면 옥진의 아름다움을 가늠할 수 있다. 화랑세기 11세 하종조를 보면 “용모가 절묘하여 풍만함은 옥진을 닮았고, 명랑함은 벽화를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를 닮아서 백화의 영검함을 뭉쳤고, 세 가지 아름다움의 정기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 옥진은 미실의 외할머니(어머니 묘도의 어머니)이고, 벽화는 미실의 아버지의 외할머니(아버지는 미진부, 미진부의 어머니는 삼엽공주, 삼엽의 어머니는 벽화이다 - 벽화는 신라에서 가장 미인으로 삼국사기에 서술되어 있고, 소지왕을 잠 못이루게한 여인이다), 그리고 오도는 옥진과 금진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미실의 아름다

움 몇 대에 걸쳐 최고 미인들의 정기를 모았다고 표현하였다. 아울러 화랑세기(사다함조)에 “금진의 아름다움은 비록 옥진보다 못했다” 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금진이 옥진의 아름다움에 상대적으로 못한 것이지만 옥진이 못한 것은 아니다. 먼저 범흥왕의 후궁이 된 옥진이 동생 금진이 입궁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장면에서도 금진의 여색을 가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자매가 범흥왕의 후궁으로 옥진은 비대공을 출산했고, 금진은 후사가 없다. 그래서인지 금진은 출궁을 당하여 살았다. 그들의 인통姻統은 대원신통이었다.

이에 앞서 금진은 임종갈문왕(범흥왕의 동생이며 진흥왕의 아버지)과의 사이에서 첫 소생인 아들 속흥종을 낳았다. 삼국사기에는 속흥종이 임종과 지소사이에서 태어난 진흥왕의 동복 동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속흥종의 부인이 만호인데 만호는 임종과 지소의 딸이다. 금진이 출궁당하여 문상蚊上이란 곳에 나와서 살 때 구리지가 접근하였다. 구리지는 금진을 얻기 위하여 절(천주사)에 가서 5년 동안 발원기도를 하였고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금진은 구리지와 사이에서 토함과 사다함 그리고 딸 새달을 두었다. 새달은 위화랑의 아들 이화랑의 후처로 들어가서 많은 자

식들을 두었다.

금진은 구리지가 전장으로 출전하였을 때는 구리지의 용양신龍陽臣인 설성과 통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설원랑이다. 금진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 나고 있는 가운데 궁중에서는 범흥왕을 이어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왕후 사도는 갓 태어난 동륜태자의 유모로 금진을 불러들였다. 사다함은 이때 어머니를 따라 궁궐에서 살았다. 궁중에 들어온 금진은 진흥왕과의 사통으로 임신을 하였고 사도왕후의 미움을 받아 또 다시 출궁되었다. 하지만 진흥왕은 곧 금진을 궁으로 불렀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난성공주이다.

그 후 금진은 남편 구리지가 전사하였고, 또 연인 설성마저 전사하자 어린 무관랑을 자신의 처소로 자주 불러서 통정을 하였다. 무관랑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사다함열전)에 두 줄 정도 나오는데 ‘봉우유신’이란 화랑도정신의 표본으로 되어있다. 모름지기 친구란 사다함과 무관랑 같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둘이서 죽음을 같이하는 사우死友가 되자는 약속을 했는데 무관랑이 병들어 죽자 매우 슬피 울다가 7일만에 열일곱의 나이로 사다함도 죽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화랑세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관계가 실려 있으며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의 관계까지 실려있다. 즉 구리지와 설성이 전사한 후 허전한 침실을 홀로 보내야 했던 금진은 아들의 사신私臣인 무관랑을 침소로 자주 불렀다. 주군인 사다함의 어머니라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는 무관랑에게 사다함은 오히려 무관랑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해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너그럽게 이해하는 주군의 언행에 깨달은 바가 있었던 무관랑은 어느날 금진낭주의 처소를 도망쳐 궁궐 담장을 뛰어넘다가 그만 구지에 빠져서 크게 다쳐 며칠을 앓다가 죽었다. 무관랑의 죽음에 사다함은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다가 7일만에 죽었다. 김태식은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 에서 그들을 동성애의 관계로 보고 있다.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 또한 자신의 용양신 설성과의 관계가 동성애로 보여진다. 결국 아버지 구리지와 아들 사다함은 양성애의 성적취향을 가진 것 같다. 다음은 구리지와 용양신龍陽臣에 관하여 살펴 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2016 K-FOOD FAIR

H MART 와 함께하는

I ♥ K-Food

한국산 농식품이 좋다!
아이 러브 코리안 푸드!



sponsor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OV. 11th - NOV. 20th, 2016 at all MA Hmart stores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경과관리까지 전문의가 관여하여 직접 행아웃과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진행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최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진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세심한 진료로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최고의 성형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자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 1989년 미국 유학
 - 1991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2년 미국 성형외과 학회 회원
 - 1993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4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5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6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7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8년 성형외과 전문의
 - 1999년 성형외과 전문의



성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2주전 후사건
가장 안전한
수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50만원



핵의의료사건예방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84-8728)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MA Best Nail School **yelp** Reviews 5stars

(MA주 한인 운영)
네일 자격증 학원

- > 저렴한 Tuition
-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2월 28일)
1개월 완성 집중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4주과정: 9:30AM-4PM

5주과정: 4:30PM-9:30PM

현재 학원내에서 진행중인 주말 미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네일아트의 예술성에의 가능성을 넓히고 순수미술적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강사: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WEEKEND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에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한국어 문자 가능)

617.895.9768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4)

하버드(Harvard) 대학의 투자전문가

하버드 대학은 최고의 명문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도 하버드 대학은 익히 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똑똑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나 손주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유명 대학은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자금(Endowment Fund)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운영자금은 무려 \$35.7 billion입니다.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은행에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 자금이 계속 불어나게 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이 매우 똑똑(?)하여 투자를 잘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투자하기에 당연히 고소득을 창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수익률이 2% 하락했습니다. 겨우 2% 하락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9 billion입니다. 한 일반 투자자가 주식시장 전체에 60% 그리고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서 채권에 40% 투자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2.3% 상

승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마디로 일반 투자자의 수익률이 하버드 대학의 주식 전문가가 투자한 것보다 4.3%가 더 높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시기 어떤 투자자가 100%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5%이며 이것은 하버드 수익률보다 7.3%나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 평균 수익률을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수익률은 5.9%였고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8.9%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하버드 대학의 수익률은 5.7% 그리고 주식시장에 60%와 채권에 40%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6.9%로 하버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Harvard University Endowment Posts 2 Percent Loss on Investments, Economy, September 22, 2016)

헤지펀드는 돈 많은 부자만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투자액수에 매년 2%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합니다. 헤지펀드를 운

용하는 펀드매니저는 그야말로 투자전문가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투자비용을 부과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투자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투자기관(Wall Street Journal analysis of data from research firms HFR Inc. and Morningstar Inc.)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2016)도 헤지펀드는 S&P 500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절반인 3%입니다. 브레벤(Brevan) 헤지펀드는 세계적으로 손꼽는 헤지펀드로 2014년 총자산 \$40 billion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조한 수익률로 투자자는 대부분 빠져나가고 현재 남은 자산은 \$18 billion입니다.

1988년부터 운영해 오던 유명한 페리(Perry Capital) 헤지펀드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2014년 말에는 자산이 \$10.4 billion이었는데 그동안 60% 자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에는 투자자가 무려 자산의 12%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계속된 저조한 수익률 때문입니다. (Richard Perry to Shutter Hedge Fund after Rough Stretch, WSJ,

September 26, 2016)

하버드 대학의 자금을 운용한 펀드 매니저나 헤지펀드를 운영한 매니저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투자전문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투자 성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주식의 도사(?)는 없다고 자주 언급한 이유입니다.

간혹 어느 시점에 어떤 투자전문가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 투자자 모두가 특별하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허황한 희망일 뿐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경비가 적은 투자로 나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하버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투자의 성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기술과 철학의 분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많은 분야에 새로운 발견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로 은행업무, 영화감상, 화상통화는 물론 자판기에서 커피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발달한 과학기술에 비해서 인문학은 어찌 되었는지 아직도 19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란,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연구 표현하는 철학, 문학, 정치등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같이 접목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철학자는 곧 과학자였다. 세상이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고는 과학이 기전에 철학적 고찰이었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자로서의 정신 철학을 의술만큼 중시하는 철학이 이미 그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 혁

명이 과학과 철학의 분리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술혁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목적이 철학적 고찰을 밀어내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항상 창출한다는 공식은 파괴되었다.

오늘의 세계정치를 보면 어디서 본듯한 현상을 많이 목격한다. 오래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정책실패로 물러섰던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아무도 공중전화와 삐삐의 시대로 돌아가려하지 않는데, 정책이나 철학은 구습을 답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에게 기술발전에 해당하는 철학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학의 발전은 단지 사상의 발전이 아니라 생활의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철학의 발전은 행복창출이다. 소비자에게 행복을 창출하는 경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전산시스템, 온라인을 통한 계약, 가격형성 분석자료들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간단한 공식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 하루 하루가 지겨운 삶은 불행한 삶이다. 하루 하루가 즐거운 삶은 행복한 삶이기"라는 인식하면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정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이 철학을 어떻게 현실에 접목시키느냐이다.

부동산 매매는 30여일이 걸리는 여정이다. 원하는 주택선정, 바이어의 오퍼 기간까지 포함하면 몇달씩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을 얼마나 즐겁게 느끼려고 노력하는가가 결국 성공적인 주택매매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18세기의 산업혁명명이 부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과오를 우리는 개인의 주택매매의 혁명에서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해를 보았던

부는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행복한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Olive Since 2008
 2008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한국방송을 서비스한 티보플레이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는 동시서비스에 우리 특산

한국어권외 한국방송 및 파산영화
 다양하게 즐기는 합법 IPTV **TBO**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월 → **\$29.99** /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 \$29.99** /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OCN, JTBC, MBN, Olive, Xtv, etc.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서울 (02) 253-855-1004, 대구 (053) 406-257-2525, 샌디에고 (619) 318-4182, LA (213) 263-1235
 시애틀 (206) 847-901-4112, 글라스고우 (New Korea) 812-347-9111, 샌안토니오 (210) 445-1525, 앨버커키 (505) 266-4743
 이베이시티 (909) 679-664-6614, 오하이오 (216) 230-7773, 비자니아 (708) 942-6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차로 (Yoocho) 212-666-8665, New York, New Jersey 212-488-1072
 트루노 (강원) 03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88

상당할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잡다한 역사 (4) 이어지는 선거, 그리고 슬로건

대한민국의 2007년 대선 당시, BBK나, 한 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술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키워드는 '경제였고 그의 선거 슬로건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었다. 말하자면 그 선거에서 경제라는 키워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었다.

1896년, 매킨리: "Good Money Never Made Times Hard"

미국 대선에서도 경제가 선거 슬로건의 핵심이 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가령 통화정책을 둘러싼 계층간 이해가 핵심 이슈였던 1896년,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이른바 "황금 십자가 연설 (Cross of Gold Speech)"을 통해 "인류를 황금의 십자가에 못박으면 안된다"면서 금본위제 폐지를 주장하고, 은화 자유 운동을 벌였던 제 3당인 인민당(People's Party)과 연합하여 선거를 치렀다. 이와 정반대편에서 동부의 은행가와 산업재벌들이 선호했던 금본위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공화당의 윌리엄 매킨리는 "Good Money Never Made Times Hard"라는 슬로건을 통해 금본위제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1928년, 후버: "A Chicken in Every Pot and a Car in Every Garage"

1928년의 선거 역시 경제가 키워드였다. 세

번의 선거에서 내리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920년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낙수효과(Trickle Down, 즉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는 투자와 소비 유발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로써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였다. 1929년 대공황으로 낙수효과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수면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미국 경제 전체가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직전까지, 1920년대는 번영의 시대인듯했다. 가령 1923년 하딩 사후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이어 1924년 선거에서 당선된 쿨리지는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이어갔다. 적어도 GDP같은 지표가 좋았던 덕에, 사람들은 "쿨리지 번영기"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하여 1928년 선거 당시 후버의 슬로건은 쿨리지 번영을 유지하자며 모든 미국인의 부엌에서는 치킨 수프가 끓고 있고, 모든 미국인의 차고에는 차가 있는(A Chicken in Every Pot and a Car in Every Garage)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놓았다. 일명 "치킨이 있는 저녁"이라고나 할까. 그 선거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미국 경제는 대공황이라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지만.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Happy Days are Here Again"

대공황의 상처가 전 미국을 할퀴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이 후버때문이다." 공화당의 후버가 재선이 될 확

률은 매우 낮았던 때,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 딜"을 들고나온 루즈벨트는 "행복한 날이 다시 여기에(Happy Days are Here Again)"를 외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뿐"이라고 연설했다.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8조에 따라 1918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루즈벨트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금주법을 내세웠고 그의 취임 직후 수정헌법 21조는 수정헌법 18조를 뒤집고 금주법을 폐지시켰다. 애주가들에게 행복한 날은 다시 찾아왔다.)

이어지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맞선 알프레드 랜든은 Defeat the New Deal and Its Reckless Spending(뉴딜을 끝내고, 그 무절제한 재정지출을 막자) "새 판을 짜자(Let's Get Another Deck)" 라이프, 리버티, 그리고 랜든(Life, Liberty, and Landon) 등의 슬로건을 들고 나와, 뉴딜의 규제와 사회주의적 함축 등을 비판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슬로건은 단 한마디로 랜든의 슬로건을 무장해제했다. 후버를 기억해봐 (Remember Hoover!)

1980년, 레이건: "살만하십니까?"

20세기 대선 후보 중 경제를 핵심 슬로건으로 삼아 백악관에 입성했던 대통령 중 로널드 레이건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레이건이 대선 후보로 등판했던 1980년,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를 이겼다. 일반 투표에서도 50%가 넘는 득

표, 그리고 선거인단 득표수로는 90%를 차지한 압도적인 승리였다. 레이건의 슬로건은 이랬다: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잘 살고 계십니까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four years ago?)"

2차대전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고, 그 성장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성장은 1970년대 아랍 산유국 연합들이 원유 가격을 동시에 대폭으로 인상하면서 세계경제가 휘청이게 된 1973년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인 1978-9년에 벌어진 2차 오일쇼크는, 전 세계의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혔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및 실업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 당시의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은 카터가 무능해서, 혹은 카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슬로건 "4년 전보다 잘 살고 계십니까?"라는 슬로건은 매우 효과적으로 상대 후보로 나온 카터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잘 살고 계십니까?"라는 슬로건은 확실히 강렬했고, 레이건 8년 임기 동안의 "레이거노믹스"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다만 8년에 걸친 레이건 시대, 군비 지출 등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 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반전.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형 법]

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DUI)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서 송년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혹은 '그리 많이 취하지 않았어' 라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는 것은 생활의 많은 불편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을 중심으로 처벌과 경찰에게 잡힌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은 뉴저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의 정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0.05%-0.07%)이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0.08% 미만으로 운전한다면 뉴저지에서는 음주 운전이 아니지만, 뉴욕에

서는 음주 운전입니다.

뉴욕은 "Zero Tolerance Law" 라고 하여 21살 미만의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0.02%-0.07%)으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약 3개월(9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는 데 반해 21세 미만의 청소년은 최소 1년의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21살 미만의 청소년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걸린 경우에는 1년 혹은 21살이 될 때까지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걸린다면 1년이 아닌 21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 즉 2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경찰은 해당 청소년 운전자의 형사고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이 잡은 경우, 경찰은 혈액 내 알코올 농도 확인을 위한 Chemical Test를 요청할 것입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며 검사를 지연시키려 한

다거나 거부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Chemical test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라도 Chemical test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욕 주에서는 최소 1년의 면허 정지와 약 \$500 정도의 벌금을, 뉴저지에서는 최소 7개월에서 1년까지의 면허정지와 \$300-\$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고 차후 음주 운전이었다고 판명이 나는 경우 검사 거부에 따르는 벌금과 면허 정지에 추가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사(Manslaughter)나 차량 관련 폭력(Vehicular Assault)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옥형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처벌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많은 교통 관련 티켓들은 처벌 수위가 한번 결정이 되면 반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거나 티켓의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뉴욕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로 분류되며 해당 운전면허증이 정지됩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보트나 모터로 움직이는 눈썰매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도 비슷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취직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자체가 본인만의 안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접근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분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SAT/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Thanksgiving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SAT/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감독,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8:00-8:30	단어 test	단어 test
8: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BAT Writing & Language Class
4:00-6:00	TOEFL Class	B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8: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9:00-10:00	귀가	귀가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